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우리 셋 I

(我们仨 I - 한국어번역논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金 旻 敬

2017年 7月

# 우리 셋 I

(我们仨 I - 한국어번역논문)

指導教授 宋 咳 宣

金 旼 敬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7 月

金旼敬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以 花

委 員

金 中 燮

委 員

宋 咳 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7 年 7 月



## <목차>

제 1장 여보, 우리 이제 늙었어요	-----	1
제 2장 우리 셋의 이별	-----	3
하나. 옛 역로를 걷다	-----	3
둘. 옛 역로 위에서의 재회	-----	14
셋. 옛 역로에서의 이별	-----	25
제 3장 나 홀로 그리는 우리 셋의 지난 날	-----	40
(一)	-----	40
(二)	-----	49
(三)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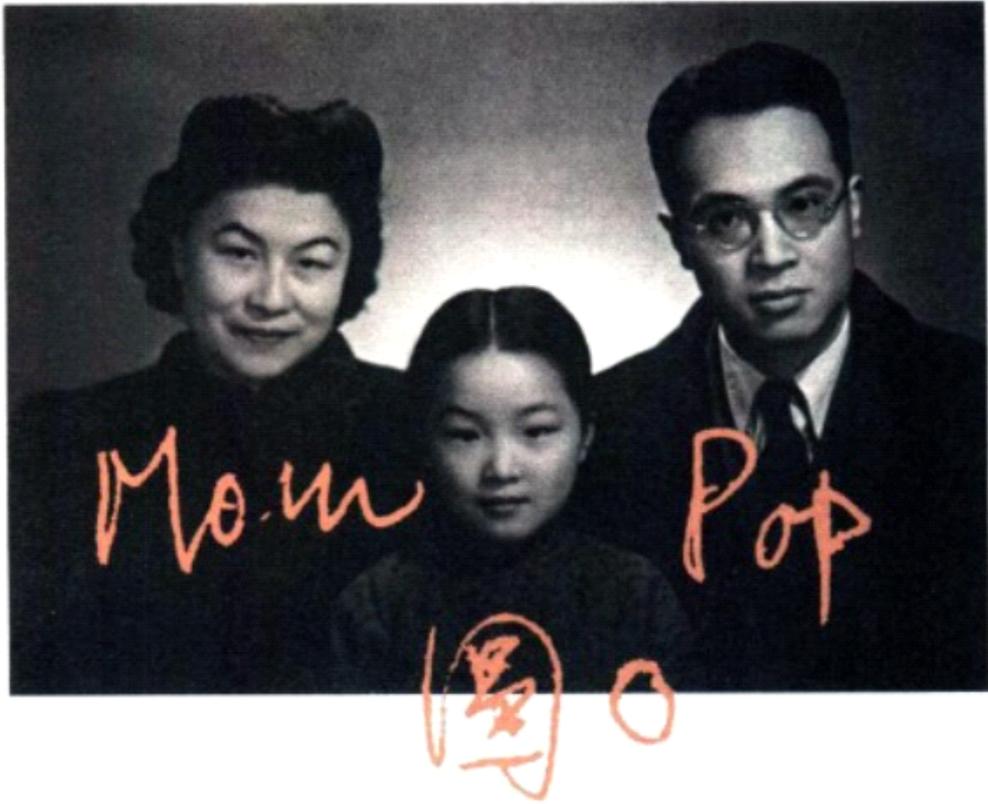
제 1장 여보, 우리 이제 늙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남편 채중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곳에 도착해 있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질 무렵 남편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사방으로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리쳐 남편을 불러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 홀로 황야에 서 있었고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큰 소리로 연달아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나의 외침은 희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마치 광야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오로지 적막만 남은 곳에 밤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의 외로움도 커져만 갔다. 앞을 보니 어둠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다. 나는 모래 길 위에 서 있었고 내 옆엔 숲이 있었으며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지만 얼마나 넓은지는 가늠할 수 없었다. 뒤를 보니 가옥이 몇 채 모여 있어 사람이 사는 곳인가 했는데 불빛조차 없었다. 그냥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남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나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을 때, 빈 수레를 끌고 있는 노인이 나타났다.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아서자 노인 또한 수레를 멈추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황하여 찢찢 매다가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남편은 내 옆에서 한창 단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한참을 뒤척이면서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내가 꾸는 꿈을 주저리주저리 얘기했다. 어떻게 한 마디 말없이 나를 내팽개칠 수 있냐고 원망했다. 남편은 결코 내 꿈속의 그를 위해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 꿈은 노인들이 꾸는 꿈이라며 자기도 자주 꾸다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사실 그렇다. 이런 꿈은 전에도 여러 번 꾸는 적이 있다. 꿈속 광경은 다를지라도 분위기만은 항상 똑같았다. 대부분 우리 부부가 등장하고 남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나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지만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이리저리 남편을 찾아다니다보면 보통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홀로 어두워져 가는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면 기다리던 차는 항상 오지 않았다. 이 슬프고도 불안한 꿈속에서 나는 남편을 찾지만 하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남편은 아마도 내 원망들을 마음속에 담아 놓고는 기나긴 꿈을 꾸게 만들지 않았을까?



## 제 2장 우리 셋의 이별

이 꿈은 기나긴 꿈이다. 꿈속 광경이 정말 현실과 같아서 꿈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꿈속인 듯했다. 그러나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옛 역로를 걷다.

저녁을 다 먹고 남편과 딸이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련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보, 여보! 아웬이 날 괴롭혀요!”

아웬은 당당하게 말했다.

“마미!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라고요!” (우린 각각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때에 따라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

아웬이 말한 ‘아빠의 잘못’은 바로 딸의 방을 어지럽힌 일을 말한다. 나는 아웬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찌 된 까닭인지 알 수 있었다. 아웬의 베개 위에 커다란 사진들이 매우 높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앉은뱅이 의자가 뒤집혀 발이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또 그 위에 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분명 아웬이 집으로 돌아와서 막 벗어 놓은 신발일 것이다). 그 구두 한 짝에는 필통이 꽂혀있었고 필통 안에는 붓글씨용 붓, 그림 붓, 연필, 볼펜 등등이 담겨져 있었다. 또 다른 구두 한 짝에는 작은 빗자루 하나가 꽂혀 있었다. 베개 옆에는 아웬이 집에 올 때 가져온 커다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로로 놓인 각양각색의 서적들이 늘 어져 있었는데 마지막엔 내가 아웬에게 준 구둣주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마 무언가의 꼬리 부분인 듯했다. 아웬은 침대와 책상 사이에 서서 책상과 피아노 사이에 있는 아빠를 가로막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딱 걸렸어요!!”

남편은 온몸을 한껏 웅크리고는 눈을 꼭 감은 채 말했다.

“아빠 없다!”

남편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마침 옆에 있던 나는 남편의 배를 보았는데, 남편의 배가 웃을 때마다 파도가 치듯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아웬이 말했다.

“뭐 이런 어설피른 알리바이가 있나요?”

나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세 사람 모두 너무 웃는 바람에 거실의 전화 벨이 몇 번이나 울린 후에야 겨우 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화를 받는 일은 언제나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답장을 쓰는 일은 남편의 일이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남편이 어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첸중수씨는 아직 몸이 좋지 않아요, 제가 첸중수씨 아내인데 남편 대신 병가를 낼게요.”

그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이 명령 투로 말했다.

“내일 꼭 참석하십시오. 가방, 수첩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오. 오전 9시에 차로 데리러 갈 것어요.”

나는 또 급하게 말했다.

“죄송한데 회의가 어디에서 열리는 거죠? 기사님께 대신 병가를 신청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산속이요. 기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 내일 오전 9시에 데리러 가겠소. 가방, 수첩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오. 오전 9시, 잊지 마시오.” 전화가 딱 끊겼다.

남편과 아웬은 옆에서 내가 전화로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남편은 어느새 다가와 내 옆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웬도 아빠를 따라나와 소파 팔걸이에 앉았다. 아웬은 엄마가 아이를 달랠 때 쓰는 말을 몇 마디 배워뒀다가 아빠가 병가를 신청할 때마다, 학교를 멍멍이 치고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를 달래듯이 아빠를 달랬다.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우리 아빠”

나는 전화로 들은 내용을 설명하긴 했지만 내일 어떤 회의인지 물어보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남편은 이미 84세의 노인이며 큰 병을 앓고 난 후인 데다가 회의에 필요한 직무를 맡고 있지 않았다.

“내일 여보를 데리러 오면 내가 대신 회의에 참석할게요.”

남편은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나무라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고 내일 외출할 때 입을 옷을 꺼내

옷걸이에 걸어 놓고 깨끗한 손수건을 골라 옷 주머니에 넣었다. 남편은 나를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회의에 참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남편은 내가 대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와 아웬은 계속 어떤 회의일까 추측해 보았다. 남편은 기운 없는 모습으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저녁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잠들었다. 우리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그리고 아웬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튿날 아침 아웬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스스로 아침을 차렸고 아침을 먹자마자 바로 학교에 갔다. 우리 부부의 아침식사는 항상 남편이 차린다. 물을 끓여 향긋한 홍차를 우리고 우유를 데웠다(우리는 밀크티를 마신다).

남편은 계란을 알맞게 삶고 토스트기로 빵을 다 굽고 나서 냉장고에서 버터와 잼 등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나는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후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남편이 옷을 갖춰 입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산책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갈 차를 기다렸다. 9시가 가까워질 즈음에 우리는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검은색 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 기사는 남편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차에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는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마치 내가 남편을 따라 차에 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인 듯했다. 나는 집 앞에 서서 남편을 태운 차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차가 어떤 차종인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차 번호판 또한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

나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작년에 큰 병을 앓았을 때, 나는 병원에서 함께 지내며 남편을 간호했다. 남편의 병이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땐 나는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바람만 불어도 획 쓰러질 듯한 사람이 되어있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건강을 찾아 벽을 짚지 않고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 탓에 내 체력도 이미 내 맘처럼 따라주지 않게 되어 버렸다.

우리 집 아줌마는 시간제 도우미였다. 아줌마는 십여 년간 우리 집에서 도우미 생활을 했고, 집 안 사정이 점점 좋아지자 다른 집 일을 그만두고 우리 집만 맡아서 일했다. 나는 도우미 아줌마를 믿고 우리 집 비상 열쇠를 맡겼다. 우리 부부가 병원에서 지낼 때나 아웬이 학교에 가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아줌마가 평소처럼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었다. 아줌마는 상황에 맞춰 격일로 오기도 했고 매일 오기도 했다. 그날 아줌마는 집안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근했다. 나는 밥을 뜬 들여 뚜껑을 덮어놓고, 남편이 오면 바로 볶으려고 야채를 썰어 팬에 올려놓았으며, 국도 끓이고 뚜껑을 덮어 놓았다.

기다림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다리지 말자고 다짐을 하며 일에 전념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절실하게 기다려졌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혼자 집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곧 두시가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국 반 그릇에 밥 두 숟갈을 대충 말아 먹고 누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쩌다 남편을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는 차에 태워 보냈을까?

아웬은 원래 늦게 돌아온다. 나는 저녁을 먹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저녁밥을 해야 하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아줌마가 연한 소고기를 사다 왔지만 나는 구울 줄을 몰랐다. 고기를 굽는 일은 아웬이 잘했다. 나는 탕을 끓여 남편과 아웬이 좋아하는 보르시(러시아식 수프)를 만들고 싶었지만 계속 초조한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아웬이 어서 돌아와 내 모든 불안을 풀어주기만을 바랄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원래 많이 먹지도 못했고 입맛도 없었다. 남편도 나이가 들자 식사량이 줄어서 아웬이 집에 없을 때면 우리 부부는 저녁 식사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했고 아웬이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음식의 양을 조금 늘릴 뿐이었다. 아웬은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와 수업 준비를 하고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숙제를 검사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엄마, 너무 배고파요’. 나는 내심 아웬에게 미안하여 나중에 근사한 저녁식사를 차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몸이 안 좋아지면서 모든 일을 아웬이 도맡아야 했다. 아웬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와 남편을 위해 음식을 하고 조금만 더 먹어보라고 어르고 달랬다. 아웬은 항상 이런 말을 했다.

“요리책을 보는 건 사전을 찾아보는 거랑 비슷해요! 한 글자를 찾기 위해 세 가지 사전을 찾아보는데, 요리도 요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 가지 요리책을 봐야 하거든요.”

아웬은 요리하는 데 이미 어느 정도 도가 터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오븐을 샀

는데 나중엔 고성능의 오븐 하나를 또 샀다. 아웬은 그 오븐으로 정성을 들여 우리를 위해 갖가지 부드럽고 연한 고기를 구웠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좀 먹어보지 않겠냐고 묻곤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못해 몇 입 먹는 척했다. 사실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입맛이 없었을 뿐이지 아웬의 요리는 정말 훌륭했다. (남편 역시 큰 병을 앓고 난 후라서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나는 아웬이 실망할까 봐 항상 맛있다고 대답했다. 내 말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웬은 감격하며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하고 남편이 먹는 모습을 보면 ‘고마워요, 아빠!’라고 말했다. 나와 남편은 아웬을 바보 같다고 놀렸지만 사실 모두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억지로 먹으니 아웬도 요리에 흥미를 잃어갔고,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기자 아웬 또한 식욕을 잃어갔다.

나는 이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느라 저녁밥조차 하지 못했다. 점심으로 준비한 약간의 채소, 느타리버섯, 얇게 썬 등심 모두 배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내가 이미 낮에 냄비의 밥을 반이나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웬에게는 부족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또 아웬은 나에게 이런저런 이치를 설교하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못살게 굴지 말라고 할 것이다.

“산에서 회의하기 때문에 어찌면 3일 정도 걸릴지 몰라요.”

“그럼 어디서 지낼까? 수건이랑 칫솔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런 곳엔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아웬은 농담조로 이렇게도 말했다.

“엄마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파출소에 신고하고 싶었다. 그러나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아웬이 돌아온 후 오히려 근심이 더해져 저녁을 얼마 먹지 못했다. 아웬은 내일 학교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숙제 검사와 수업 준비를 다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자는 척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최소한 아웬이 편히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히 내일 아웬이 내 곁에 있어 심적으로 의지할 곳이 생겼지만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와 아웬은 일찍 일어나 함께 요리를 했고, 아침식사가 끝나자 나에게 산책하고 오라고 했다. 나는 혼자서 산책하고 싶지 않았다. 아웬은 내 맘을 모르는지 설거지를 하고 물을 끓여 보온병에 가득 담아주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남편이 하던 일들

이다. 나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그저 얼이 빠진 채 방 안을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전화벨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웬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매우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빠!!”

나는 재빨리 아웬 옆으로 갔다.

“네..... 네..... 네..... 네..... 네”

아웬의 대답은 전부 ‘네’였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뭐라고 하시니?”

아웬은 다급히 손을 내젓고는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무언가를 급히 쓰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썼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아빠를 찾았어요! 저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올게요.”

아웬은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헛갈릴 수 있으니까 다녀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웬은 가방을 메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만약 제가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식사 하세요”

아웬이 전화를 받아서 다행이다. 아웬은 빠짐없이 다 기억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놓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아웬은 언제쯤 돌아올까? 나는 너무 신경이 쓰여 다른 일은 제쳐두고 밥 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내가 퇴직을 하기 전에 남편과 딸 아웬에게 약속을 하나 했다.

“내가 퇴직하면 당신과 아웬에게 요리를 해주는 걸로 그 동안의 빚을 다 갚을 게요!”

나는 나 스스로 집안일을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하단 말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아웬은 웃으면서 말했다.

“됐어요!”

“엄마는 칼질도 잘 못하잖아요. 칼은 보기만 하면 겁을 먹고, 또 성격이 급해서 음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할 거예요.”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요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퇴직하고 쉴 수 있겠어요?”

사실 남편과 아웬은 이제까지 내가 한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들은 무조건 맛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말 성심성의껏 밥을 해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무슨 요리를 하든지 망칠 것이 뻔하고 내가 망치지 않았다 해도 남편과 아웬이 제때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일이란 종종 생각과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밥은 정말 맛있게 잘 됐다.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웬은 나한테 기다리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웬은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야 혼자서 집에 도착했다. 아웬은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오래 돌아다녔는지 매우 피곤해 보였고, 바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순간 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웬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제가 찾았어요! 주소도 틀리지 않았고, 두 번 환승하니까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아빠가 말한 곳으로 가는 표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두 번이나 줄을 잘못 섰어요. 한 번은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제 차례가 왔는데 창구 안에 있던 직원이 여기 서지 말고 뒤로 가라고 하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말한 뒤쪽이 어딘지도 알 수 없었어요. 아빠가 말해준 대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모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업무 시간이 지나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뒤쪽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막 창구를 닫으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무작정 달려가 옛 역로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죠. 그 사람이 바로 그곳이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제가 '뭐 잊어버린 게 있었나, 또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매우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지 뭐예요."

"옛 역로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네, 처음부터 다 알려드릴게요. 아빠는 도착하고 나서 바로 전화를 했던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어떤 대강당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대요. 회의장으로 갈 교통수단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장거리 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비행기와 차편은 탈 수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 회의장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먼저 타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아빠는 아무도 타지 않는 배를 선택했나 봐요. 전화로 아빠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옛 역로'였어요. 거기 창구 직원이 말했는데 오전은 이미 업무가 다 마감됐으니 오후 2시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분명 마감시간 5분 전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차마 멀리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근처에는 마땅히 먹을 만한 음식을 살 곳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창구 아래에 앉아 마냥 기다렸죠. 2시 17분 정도에 창구가 열리고, 창구 직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던 저를 보더니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가족인가 묻더니 직계가족만 갈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 엄마와 저 둘만 가능해요. 그 창구 직원은 또 저에게 객잔 주소를 알려 주면서 거기 가서 수속하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말해줬어요. 오늘 가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분명히 다들 퇴근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내일까지 기다려요."

나는 고기와 국을 데우고 아웬을 먼저 먹게 한 후 나도 국을 조금 마셨다.

"거기는 어디니?"

아웬이 말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들도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다 적어뒀어요."

아웬은 가방 속에서 수첩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면서 말했다.

"갈 때 현금이랑 예금증서 전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입실할 때 미리 한 번에 계산하고 퇴실할 때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주는데 만약 지불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나 봐요."

나는 딸의 말을 듣고 이번 일이 더더욱 납치 사건으로 느껴졌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웬은 항상 꼼꼼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밥을 데웠고 우리 둘은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점심과 저녁을 한 끼로 해결했다.

나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었다.

"얼마나 머무르게 될까? 짐은 얼마나 챙겨야 하지?"

"갈아 입을 옷 두 벌만 챙기세요. 웬만한 생활용품은 거기에 다 있으니 돈만 챙기면 돼요."

아웬은 또 간단하게 적어두었던 자질구레한 일들을 말해주었고, 나는 주의 깊게

들었다.

아웬은 거듭 반복해서 나에게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내일은 꼭 아빠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체념하듯이 말했다.

"나는 네 아빠가 혼자서 너무 애태우고 있을까 봐 걱정되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아빠가 그 상황에 전화할 생각을 다 했을까? 네가 전화를 받아서 천만다행이지 내가 받았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을 거다. 나는 지금 당장 문 밖을 나가면 길도 모르고 차도 탈 줄 몰라. 이젠 정말 밥만 축내는 밥통이 되어버렸어."

아웬은 목을 움츠리고 웃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밥통 안에 쌀 몇 톨과 국 한 숟가락밖에 없네요."

이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웬은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어쨌든 문제없어요. 제가 엄마를 객잔까지 안전하게 모셔다드릴 테니, 엄마는 길을 알 필요도 없고 차를 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학교 수업을 해야 하니까 저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아웬은 다시 수첩을 자세히 보았고, 나는 가방을 챙기고 예금증서를 정리한 다음에 현금을 아웬에게 주었다.

다음날, 아웬은 아침식사가 끝나고 손에는 내 가방을 들고 어깨에는 자신의 가방을 메었다. 우리 둘은 택시를 타고 아주 먼 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내렸다. 아웬은 자신의 가방을 메고 나를 부축하며 사람이 꼭 찬 버스를 비집고 올라탔고 우리가 탄 버스는 한참동안 먼 길을 달렸다. 버스에서 내린 후 외진 거리를 걸어가자 길옆에 오래된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간판이 보였다. 팻말에는 전서체로 크게 세 글자가 써져 있었다.

'옛 역로'

그 밑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았다. '바랑도', '셴양도' 등 지명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전에도 본 듯했다. 아웬은 쓱 훑어보고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도착했어요, 바로 여기에요. 엄마, 311번만 찾으시면 돼요. 그게 아빠가 말한 번호예요"

아웬은 내 손을 잡고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 어느 입구에 다다랐고 아웬이 어딘가를 누르자 입구에 붙은 창구가 열렸다. 아웬은 신분증을 내밀어 보여줬고 창구가 닫히더니 문이 열렸다. 그 문은 우리가 객잔의 후문으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닫혔다.

객잔은 후문이 남쪽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다. 객잔에 들어가니 바로 입구에 카운터가 있었다.

아웬이 말했다.

"엄마 피곤하시죠?"

아웬은 카운터 옆에 앉을 곳을 찾아 나를 앉게 하고 가방을 내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혼자 카운터에 있는 사람을 찾아 수속하러 갔다. 먼저 각종 서류를 확인했는데 아웬은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었다. 객잔 주인은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후 몇 가지 양식을 꺼내 아웬에게 작성하라고 했다. 아웬은 이것저것 작성한 후 돈을 지불했다. 나는 만약 이게 납치 사건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정부 관료스럽다고 생각했다. 그 객잔 주인은 예금증서를 등록하면서 설명했다.

"이 객잔은 좀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 최신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크고 작은 정자들 모두 객잔으로 개조됐고, 한 곳에서 숙식이 모두 제공됩니다. 또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각각의 객잔에서 음식과 잠 잘 곳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잔 안에서 입는 옷과 필요한 일용품은 여기서 받으시고 장부에 서명하세요. 퇴실하실 때는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해 여기로 다시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배 안에 계신 손님들은 배 규정에 따라 관리되니 저희는 그 일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객잔에 머무시는 손님들 모두 반드시 저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는 인쇄된 경고문 한 장과, 객잔 규정 한 장을 꺼내주었다.

경고는 빨간색 패에 검은색 글자로 크게 써져 있었다.

- (1) 역로를 따라 걷고, 길이 나 있지 않은 곳은 가지 마십시오.
- (2)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 (3)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규칙은 흰색 종이에 또 검은색 글자로 크게 쓰여 있었다.

- (1) 태양이 선실 앞까지 내려오면 즉시 객잔으로 들어오십시오. 역로는 외진 곳

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문을 잠그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2) 모든 객잔에서 휴식과 식사가 가능합니다.

(3) 배에서 내리면 원래의 객잔으로 돌아오십시오.

객잔 주인은 우리에게 번호가 적힌 동그란 패를 하나씩 주었는데, 위쪽에 지문을 찍게 하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당부했다.

"출입할 때 항상 이 패를 가지고 다니시고, 규정을 꼭 준수하며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특히 3번째 경고를 주의하십시오. 입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객잔에는 마침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길을 갔다. 나는 마음속이 답답해져 왔다. 특히 3번째 경고문 때문에 더욱 답답했다.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묻지 못하게 할까? 만약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나는 손가락으로 빨간색 패 위의 3번째 경고를 일부러 가리키며 다시 확인하려는 듯이 객잔 주인을 향해 말했다.

"물어볼 수 없고, 물음표를 찍어서도 안 된다."

이건 당연히 물어 본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객잔 주인은 눈을 부릅뜨며 경고했다.

"방금 당신이 한 말은 아슬아슬했소. 조심하십시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웬은 조용히 내 손을 꼬집었다. 이 또한 경고의 의미였다. 나는 식사 후에 가방에서 옷핀을 하나 꺼내서 소맷부리에 달았다. 나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를 상기시키려고 소맷부리에 옷핀을 달았다.

계산대 쪽에는 대문이 두 개 있었다. 한 쪽만 열려 있었는데 그 문이 바로 객잔의 정문이다. 정문은 북쪽으로 열려 있었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나가는 순간 마치 세상이 변해버린 듯했다.

둘. 옛 역로 위에서의 재회

그곳은 안개가 자욱했다. 몇 미터 앞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으며 공기도 답답하여 숨쉬기가 어려웠다. 문밖엔 동서로 뻗은 기다란 독이 있었다. 독은 모래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꽤 넓어서 큰 차 두 대가 함께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독의 남북 쪽에는 석판이 쌓여 있었다. 객잔은 길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물길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객잔의 정문에는 새로 판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큰 글씨로 ‘객잔’ 이렇게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길 양쪽에는 오래된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옛 역로 남쪽의 독 아래는 도시의 뒤쪽 외곽지로 온갖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들풀이 만연했으며 담쟁이덩굴이 역로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한두 군데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군락지를 볼 수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의 묘인 듯했고, 역로 동쪽 끝에는 숲이 보였다. 한번 쪽 둘러보니 객잔 주위가 마치 숲에 둘러싸인 듯했다. 우리는 물길이 이어진 길로 갔다. 독은 높고 가팔랐으며 강물은 정지된 듯 흐르지 않았고 물결조차 일지 않았다. 물은 맑고 깨끗했다. 그래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하늘이 물 위에 비쳐 마치 하늘과 땅이 마주 보는 상태로 곧 이어질 듯했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숨을 쉬기 어려웠던 이유였지 않았을까? 우리는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서쪽으로 갔다. 가야 할 길이 매우 멀게 느껴졌고 앞이 흐릿하여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가지런히 물가에 줄지어 있는 푸른 풀들이 끊임 없이 먼 길을 만들어냈다.

오래된 버드나무의 뿌리가 역로를 에워싸고 있어 역로가 뿌리 모양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했고, 석판이 쌓인 주변에는 땅이 꺼진 곳이 많아 걷기가 매우 어려웠다. 강가에서는 배를 볼 수가 없었다.

아웬은 나를 부축한 채 말했다.

"엄마 조심하세요, 땅을 보면서 걸으세요."

나는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병이 나은지 얼마 안 돼 막 혼자 걸기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면서 아웬이 나를 부축하지 않도록 했다. 아웬은 이미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힘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히 걸었다. 그리고 얼마 걸지 않아 물가에 세워져 있는 작은 배 하나가 보였고 우리는 재빨리 그쪽으로 뛰어갔다.

뱃머리가 향해 있는 언덕에 기다란 장대가 꽂혀 있었고, 배의 닻줄이 장대에 감겨 있었다. 배는 아주 작았지만 앞쪽 선실, 뒤쪽 선실, 뱃머리, 배의 선미 부분이 다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방향키가 없었고 배 짓는 노조차 보이지 않았다. 발판은 배의 선미 부분과 강기슭의 모래 위에 걸쳐있었다. 역으로 향하는 긴 언덕이 발판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웬은 멈춰 서 말했다.

"엄마, 저 배 뒤쪽의 번호를 보세요. 311번이에요. 아빠가 계신 배예요!"

나도 보았다. 아웬이 먼저 독을 내려갔고 나는 아웬의 뒤를 따라갔다.

나는 아웬에게 말했다.

"걱정 말렴! 조심히 가고 있어"

아웬은 전에 발판을 건넜던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험사리 올라서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올라가 손을 뻗어 아웬을 잡아 주었고 아웬은 조심조심 옆으로 건너왔다. 마침내 우리 두 사람 모두 배에 올랐다.

배는 매우 깨끗한 상태였다. 뒤쪽 선실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앞쪽 선실엔 깨끗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눈처럼 새하얀 침대 시트와 베개가 놓여 있어 마치 병원 침대 같았다. 남편은 옆으로 누워 있었고 그의 배는 일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다.

우리는 뒤쪽 선실에서 신발을 벗고 조용히 침대로 갔다. 바짝 오므린 남편의 입술, 눈물을 머금은 눈과 얼굴에 남은 눈물의 흔적이 보였다. 배계 쪽에는 깨끗한 손수건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직접 챙겨 나간 손수건이었다. 접은 흔적이 없는 걸 보니 빨았던 것이 분명했다. 배 위에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노를 짓는 뱃사공이 있어야 했으며, 손수건을 빨았을지 모를 뱃사공의 부인이 더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배에서 내린 건가? 나는 단지 속으로만 생각했다.

나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 그의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귀에 대고 가볍게 불렀다.

"여보, 여보....."

아웬은 암전히 내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남편은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남편의 아름다운 쌍

꺼풀을 볼 수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매우 초췌해 보였다. 남편은 마음이 놓인 듯이 우리를 불렀다.

"찌강, 아웬"

남편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이어서 얼굴을 찌푸리더니 끊어질 듯 말듯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했다.

"그들이 나를 태우고 어딘가로 계속 올라가더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길을 이리저리 돌아서 가게 했어요. 눈을 뜰 수조차 없을 정도로 피곤했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배가 물 위로 떠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가 배 안이죠? 당신과 아웬이 나를 찾지 못 할까 봐 정말 걱정했어요."

아웬이 말했다.

"아빠!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이제 안심하세요!"

나는 말했다.

"아웬이 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 왔어요.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면 한숨 주무세요."

남편은 계속 버티고 있기가 힘들었던지 바로 눈을 감았다.

우리는 앉을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양반다리를 하고 땅바닥에 앉았다. 남편은 이불 한 쪽 끝으로 한쪽 손을 살짝 내밀더니 잡아달라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웬은 침대 끝에서 남편의 다리를 안았다. 남편은 일부러 다리를 움직이며 장난쳤다. 이렇게 우리 셋은 다시 재회했다. 이 순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모두 다 마음이 편안해 보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얼굴을 침대 가장자리에 기댔다. 아웬은 남편의 다리를 안은 채 얼굴을 침대 끝에 기댔다. 비록 집이 아닌 옛 역로 위에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모였다.

나와 아웬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남편의 안경도 없었고 신발도 없었다. 앞 선실 벽은 모두 수납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뱃머리 가까운 곳에는 커다란 돌 하나가 있었다. 아마 정박용 돌인 듯했다.

아웬이 갑자기 말했다.

"아이, 큰일 났네. 엄마 저 오늘 수업이 있었는데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내일 학교에 한 번 들러야겠어요."

"지금 간다고 해도 이미 늦지 않았니?"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수업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아마 분명히 저에게 전화할 거예요. 그럼 또 보강도 해야 하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학과에 전화해 봐야겠어요."

아웬이 돌아가버리면 나 혼자 객잔에 남아 있어야 했다. 나는 평소에 내가 매우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 나 스스로가 아웬을 붙잡고 놓지 않는 담쟁이덩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아웬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나마 다행히 투숙 수속은 이미 다 했고 객잔도 배와 멀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웬, 조금 앞당겨서 퇴직하지 그러니? 아빠도 늙었고 나도 이제 정신이 흐려져서 너의 부담이 너무 크구나. 그리고 네가 집필하는 교재도 겨우 상권만 출판했고, 하권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잖나."

아웬이 말했다.

"엄마는 잘 몰라요. 오히려 수업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더 알게 되고 내용을 더 보충할 수 있다고요. 이미 출판된 상권도 아직 수정해야 할 곳들이 넘쳐나요. 엄마, 엄마는 계속 저보고 퇴직하라고만 하시는데 저 아마 3~5년 후에도 퇴직하지 못 할 걸요?"

나는 순간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실 여기서 나만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그때는 이미 태양이 선체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태양이 선실 앞을 비출 때는 객잔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아빠가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소맷부리의 옷핀이 느껴지자 재빨리 말을 멈췄다.

"아빠를 깨워야겠어요."

아웬은 남편을 닮아 결단력이 있었다.

남편은 깊은 단잠을 자는 듯했다. 구름 뒤의 새빨간 태양이 아직 침대머리맡을 비추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떠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위로하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

"찌캉, 아웬!"

우리는 서둘러 그에게 태양이 선실 앞을 비추면 바로 객잔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아웬이 말했다.

"매 주 아빠를 보러 올게요. 엄마는 매일 아빠 곁에 있을 거고요. 여기는 매우 조용하네요."

남편이 말했다.

"모두 들었어."

남편은 잠귀가 매우 밝았다. 그는 자고 있어도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남편의 딱 닫힌 입에서 장난기 어린 미소가 살짝 보였다. 그리고 매우 재밌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요?"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말했다.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봐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입속에서만 맴돌았을 뿐, 순간 나 자신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했다.

아웬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빠, 우리는 이제 가야 해요. 저는 일요일에 올 거고, 엄마는 내일 다시 올 거예요"

남편이 말했다.

"어서 가렴"

나도 그때 소리 내어 말했다.

"내일 배요. 꼭 주무시고요."

나는 바삐 배의 선미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그다음 내가 먼저 발판에 오르고 나서 아웬의 손을 잡았다. 아웬은 옆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움직여서 배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또 역로에 들어섰다. 황급히 객잔으로 돌아가려는데 길이 걷기에 불편하여 빨리 걷지 못했다.

객잔에 도착한 후 아웬이 말했다.

"엄마, 제가 계속 엄마 곁에 있고 싶지만 빨리 집에 가서 전화를 해야 돼요. 또 보강 날짜도 잡아야 하고..... 엄마, 이제 엄마 혼자네요....."

아웬은 나 혼자 남겨두고 가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다. 나는 마음속에 의

지할 사람이 없어진다 해도 아웬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배도 객잔과 그다지 멀지 않았다.

"조심히 다닐 테니 내 걱정은 말렴. 저녁시간 늦겠다. 얼른 돌아가거라. 좀 있으면 차 막힐 시간이다."

우리가 객잔 문을 통과하자마자 문이 닫혔다.

"엄마, 느리더라도 걸을 때 항상 조심하면서 걸으세요."

"걱정 말거라, 일찍 일찍 자고"

아웬은 알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총총걸음으로 후문을 빠져 나갔고 후문도 아웬이 나가자마자 바로 닫혔다. 이제 앞문과 후문 모두 꽁꽁 닫혀버렸다.

나는 계단 아래에 있는 작은 식탁에 앉아 담백한 요리를 하나 주문하고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당 안에는 계산대 하나, 커다란 아궁이 하나가 있었고 주인과 종업원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 여종업원 한 명은 매우 사근사근했다. 우리는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나는 계산대 맞은편에 창구 같은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창구 옆에 있는 커다란 회전판이 차, 간식, 요리 등을 내보내고 있었다. 그 창구는 가려져 있어 점심때는 못 봤었다. 나는 여종업원에게 말했다.

"바빠 보이는데 제 것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여자는 밖에 간식을 파는 점포가 있는데 손님들에게 차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나는 또 손가락으로 위층을 가리켰지만 차마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며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 묵고 있을 뿐 다른 손님은 없다고 말해 주었다.

위층에 내 방과 이어진 화장실은 매우 깨끗했다. 내 가방은 이미 객실로 옮겨져 있었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잠이 들자 나는 하나의 꿈으로 변했다. 꿈속에서 나는 매우 가볍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미 높은 곳에 올라서 강가에 있는 배를 바라보았고, 다른 생각을 하자 바로 객잔 밖 전봇대의 전신주 끝에 서 있었다. 역로의 강가는 보이지 않았고 강가에 세워져 있는 배도 보이지 않았다. 배에는 전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잔 남쪽은 아름다웠다. 건물들이 비추는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파란불이 반짝이며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베이징이었다. 삼리허(三里河)는 어디쯤일까 생각하는 찰나 나는 이미 집 거실 창문 앞에 있는 측백나무 위에 서 있었

다. 집은 어두컴컴했다. 아웬이 어디쯤에 있는지 어느 버스에 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일 샤워가 우리 집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는데 우리 집 일을 알고 있을까? 순간 나는 아웬의 시택이 있는 시스차오(西石槽)에 도착했다.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웬이 보였다. 아웬은 막 수화기를 내려놓고 와서 식탁 앞에 앉았다. 아웬의 시어머니는 아웬 옆에 앉아 있었다. 샤워는 아웬에게 국을 떠다 주었다.

"내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 뵈 수 있을까?"

"안 돼. 엄마와 나만 거기에 갈 수 있대."

아웬의 시어머니가 말했다.

"며늘아, 여기로 이사 오지 그러니"

아웬이 말했다.

"책이 모두 그 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학교에서도 가깝고요. 밥 다 먹으면 바로 갈 거예요."

나는 아웬에게 기대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난후 아웬을 따라 또다시 차를 타고 삼리허(三里河)에 도착했다. 아웬은 샤워를 끝내고 잠을 자지 않고, 늦은 밤까지 수업 준비를 했다. 나는 이 꿈에서 아주 가볍고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정작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아웬에게 일찍 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꿈에서도 나는 피곤해졌다. 나는 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옷장 구석에서 잠을 청했는데 내 몸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을 떴다. 내 몸은 객잔 침대 위에 있었으며 손발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피로가 풀려 있었다. 나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길을 나섰다. 어서 배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어제 지나갔던 길들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 봤던 언덕 아래의 배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순간 매우 당황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으니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나 멀리 갔을까? 내 결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겁에 질린 채 내가 급히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그 배를 못 보고 지나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다. 그리고 내가 너무 느려 배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어찌나 더욱 걱정이 됐다. 나는 근심 걱정 속에서 찾아 헤맸다. 그때 역로 왼편에 또 다른 객잔이 보였다. 나는 농칠세라 바로 객잔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 객잔은 그전 객잔과 아주 똑같았다. 단

지 객잔 주인과 종업원들만 바뀌어 있었고 패를 들고 들어가니 원래 이 객잔 손님 같았다. 나는 손을 씻고 나서 다시 길을 재촉했다.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다행히도 멀리 가지 않아 역로 오른쪽에 언덕이 보였고 311호 배가 어제와 같이 언덕 아래 세워져 있었다. 나는 발판을 건너 배에 올랐다. 배의 선미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남편이 비스듬하게 침대에 걸터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웬은요?"

"학교에 갔어요."

나는 어제와 똑같이 남편의 침대 머리맡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그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다. 열은 없었고 목에도 땀이 나지 않았다. 남편의 침대 위에는 여전히 그의 손수건이 걸쳐져 있었다. 또 분명히 빨았던 흔적이 있었다. 남편의 표정은 안정되어 보였지만 얼굴이 초췌해졌고 그 사이 살이 많이 빠져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나는 넘어질까 봐 빨리 걸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꿈에서 봤던 아웬의 모습을 실제 일인 양 남편에게 말해주었다. 남편은 관심을 갖고 들었지만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묻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기다리다 지쳤는지 바로 눈을 감았다. 나도 꿈에서 피곤했고 걸느라 피곤했고 또 긴장해서 피곤했던 터라 머리를 남편 침대에 기대 눈을 감았다. 이렇게 남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매우 편안했다. 그러나 곧 배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내일 봐요.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걸어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걸으며 객잔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들었다. 아웬도 나처럼 배가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배가 밤마다 움직인다면 일요일에 아웬은 어느 객잔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객잔은 정말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제공됐다. 내 가방도 이미 새 객잔으로 옮겨져 있었다. 나는 또 어제와 같이 밤을 보내고 또 어제와 똑같이 꿈을 꾸며 아웬의 주위를 맴돌았으며 다음날 전날처럼 다른 객잔으로 가 남편이 있는 배를 찾았다. 남

편은 나를 기다리고 나는 남편과 함께 있다가 객잔으로 돌아가는 일이 똑같이 반복됐다.

하루 또 하루, 나는 날마다 일요일이 기다려졌지만 사실 며칠이 지나야 일요일이 되는지 번번이 잊어버리곤 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손을 씻은 후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아웬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웬은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다. 나는 꿈속에서 그녀가 책가방을 정리하고 잠을 자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아웬에게 가방을 안 가져왔다고만 말했다. 아웬은 책가방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호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데리고 함께 길을 걸었다. 나는 놀랐고, 감탄했다. 도대체 아웬은 어떻게 찾아왔을까? 하지만 이것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난 단지 아웬에게 우리를 못 찾을까 봐 걱정했다고만 말했다.

아웬이 말했다.

"다 알 수 있죠."

아웬은 옛 역로 사무소에 있던 사람이 배 운항노선도를 한 장 주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큰 걱정거리를 하나 내려놓았다.

우리는 함께 배에 올랐고 남편은 아웬을 보고 기뻐했다. 남편은 피곤했지만 잠도 자지 않고 오히려 신나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배 위에서 재회했다.

나는 아웬과 헤어질 때 좀 일찍 자고 너무 늦게까지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다.

아웬이 나를 달래며 말했다.

"엄마, 너무 생각하면 피곤해져요. 그럼 악몽을 꾸게 된다고요."

작년 남편이 수술을 했을 당시, 아웬은 경추에 통증이 있었다. 한참 악몽처럼 시달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아웬이 다시 말했다.

"엄마는 항상 너무 조급해요. 우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나는 계속 아웬과 남편을 이 배에서 몰래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내 꿈은 더 이상 가볍고 재빠르지 않았다. 나는 매우 피곤한 꿈을 꾸었고 그 꿈들은 아주 무거웠다. 나는 꿈에서 아웬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고 저녁을 먹으며

전화와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한 번은 학생 두 명이 저녁 늦게 아웬을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사위가 우리 집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주전자 위에서 녹인 고약을 떼어내어 아웬의 목뒤에 붙이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보는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일까? 아웬이 또 경추에 통증이 생긴 걸까? 나는 내가 본 것들을 실화처럼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남편은 아웬의 일을 묻지 않았다.

독 위에 있는 버드나무는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씩 하나씩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다. 나는 매일 옛 역로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내 그림자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이파리를 밟으며 걸었다.

어느 일요일, 우리 셋은 또다시 배 위에서 재회했다. 남편은 이미 기대앉을 기운도 없어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의치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나날이 수척해져갔는데 오래전부터 밥을 먹지 않았던 듯했다.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약간 후끈후끈했다. 나는 아웬의 이마도 짚어보았다. 아웬의 이마도 후끈후끈했다. 내 이마를 짚어본 결과 두 사람 모두 이마에 열이 있는 게 분명했다.

아웬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마가 차가운 거지 우리 이마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날 나는 남편의 손등에 생긴 새파란 멍을 보았다. 링거 바늘에 찔려 피부에 출혈이 있었던 듯했다. 그는 눈조차 뜨지 못한 채 내 손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남편의 손을 잡자마자 그는 깊은 잠에 빠졌고 태양이 앞 선실을 비출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시간관념이 철저하여 항상 제때 눈을 떠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잘 자요, 내일 봐요."

남편이 말했다.

"잘 가요."

아웬의 예상은 틀림이 없었다. 아웬은 용케도 매번 내가 있는 객잔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매주 아빠를 보러 왔고 또 샤면, 쿤밍, 충칭으로 출장을 갔다. 나는 항상 아웬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시간을 기억해 뒀다가 아웬이 출장 중일 때는 꿈을 꾸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 남편은 링거를 몇 차례 맞았더니 체온이 정상

으로 돌아오고 기력 또한 조금 괜찮아져 이제는 나와 함께 배 위에서 아웬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아웬은 정말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뛰어나요. 당신도 발표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나도 매번 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면 가슴이 쿵쿵쿵쿵 뛰어 말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아웬은 항상 자기의 의견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더라고요. 어떤 회의는 아웬이 사회를 맡기도 했어요."

남편은 감탄을 하며 말했다.

"우리의 아웬이 정말 대단한데요?"

아웬은 매번 올 때마다 항상 재미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어 내가 꾸지 못했던 꿈의 공백을 짹짹 채워주었다.

우리는 항상 배 위에서 재회했다. 그러나 아웬도 남편처럼 이마가 후끈후끈했고, 마른기침을 자꾸 뱉어냈다.

나는 걱정하며 말했다.

"병원에 가 보렴. 그리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아웬은 병원에 갔었고 자신이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아웬은 또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만원 버스에 비집고 올라탔는데 같은 차에 탄 사람이 불편했는지 '아줌마 아직 은퇴 안 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끼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니. 시간은 금이고 목숨과 같단다. 잊지 마렴. 꼭 택시 타고 다녀야 한단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웬이 대꾸했다.

"택시를 타면 항상 길이 앞뒤로 딱딱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차라리 버스를 타는 게 훨씬 빨라요."

내 꿈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지만, 아웬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나는 매일 밤 아웬의 주위를 맴돌았다. 어느 날 사위는 우리 집에서 전화로 아웬이 CT를 찍는 날을 예약하고 있었고 나는 연달아 비슷한 악몽을 꾸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우리 집에서 연이어 전화를 걸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웬을 위해서 대신 전문의에게 진료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했고 나중에 간신히 예약이 되었다.

나는 의혹에 휩싸인 채 옛 역로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다. 버드나무는 사계

절 내내 제일 부지런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한 번 불면 버드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갔고 바람이 훅훅 불 때마다 잎이 쉬지 않고 바람을 따라 우수수 떨어졌으며 겨울에는 헐벗은 나뭇가지가 되었다. 봄바람은 아직 불지도 않았는데 버드나무 가지에 싹이 나와 멀리서 보면 이미 싱그러운 푸른빛이 돌았다. 봄바람 속에선 푸르스름한 긴 나뭇가지가 나풀나풀 춤을 췄고 하얀 솜털 같은 버들개지가 안개처럼 흩날렸다. 한두 달 가량 흩날리던 버들개지가 그 비행을 끝마치기도 전에 버드나무의 녹음이 짙어졌다. 그다음 한 잎 한 잎 노랗게 물들어 떨어졌고 또다시 황량한 겨울 버드나무가 되었다. 어느새 내가 옛 역로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은 지 일 년이 넘었다.

셋. 옛 역로에서의 이별

이 날은 유난히도 추웠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아웬이 짜준 병어리장갑을 끼고 내려왔다. 내가 내려왔을 때 아웬이 계산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아웬이 나를 불렀다.

"엄마"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아웬은 이틀 전에 왔다 갔는데 왜 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아웬이 말했다.

"엄마, 저 장기 휴가를 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는데 제 병이 또 재발했어요."

아웬은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였다. 아웬은 어렸을 때 손가락뼈에 결핵이 생겨 일 년 가까이 쉬었었다.

"이번엔 요추 쪽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아웬은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다가와 내 몸에 기대며 말했다.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굽히기가 힘들고, 잘 걷지도 못 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편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줄 거예요. 병원은 서산 자락에 있는데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면

완전히 나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후문에서 저를 기다려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아웬은 또 나를 일깨우며 말했다.

"엄마, 차가 바로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밖으로 나오지는 마세요."

주인은 우리를 위해 후문을 열어줬고 나는 아웬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다. 문 밖에서 사위는 나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후문 입구에 서서 사위가 아웬의 허리를 부축하며 길가에 세워진 차에 태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웬은 차 창문을 내리고 장갑을 벗고는 작고 하얀 손을 내밀어 흔들었다. 나는 아웬이 탄 차를 눈으로 배웅하고 객잔으로 돌아왔다. 후문은 내가 객잔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닫혔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로 혼자서 역로 쪽으로 걸어갔다.

역로 위에 쌓여 있는 낙엽 때문에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히 걸어야 했다. 나는 남편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알리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숨기려고 해도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을 터이고 아웬이 일부러 와서 아빠에게 알려달라고 했으니 알려야 했다.

남편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에게 좀 화가 났는지 일부러 눈을 감고 나를 모른 체했다. 나는 평소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침대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방금 아웬이 와서 당신에게 전할 말을 남기고 갔어요."

남편은 바로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아웬이 한 말을 에둘러가며 그에게 전했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면 나올 수 있다고 한 말을 강조했다.

"예전에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약이 생겼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완치된다고 하니 안심해도 된대요."

남편은 내 말을 듣고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다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웬이 좀 쉴 수 있게 됐잖아요. 병이 나오면 그동안의 무거웠던 짐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아웬은 통통한데다가 얼굴의 혈색이 좋아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쉬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병을 앓게 되어 아웬 스스로도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 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일찍 쉴 수 있게 됐으니 분명히 잘 된 일이다.

우리는 아웬이 어렸을 때 한두 차례에 걸친 병치레, 과거의 힘들었던 일과 우려했던 일 그리고 함께 바랐던 일들을 조용히 떠올렸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남편도 나의 손을 꼭 쥐었다. 아마 걱정하지 말라는 뜻 같았다.

객잔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걱정거리가 겹겹이 쌓여갔다. 아웬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아웬을 찾아야 할까? 나는 아웬을 찾아야만 하는 힘든 꿈을 꾸야 했다. 나는 밥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바로 잠을 청했다. 나는 매우 무거운 꿈으로 변했다.

내가 꿈에서 객잔 후문 밖으로 달려 나가자 그 작고 하얀 손이 아직도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문득문득 아웬의 그 작고 하얀 손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서산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어서 바로 찾아갈 수 있었다. 청화원, 원명원 일대는 내가 잘 아는 곳이다. 내가 ‘아웬, 아웬’하고 부르면 그 작고 하얀 손이 바로 내 눈앞에서 손짓했다. 나는 마침내 새파란 송백나무 틈에서 아웬의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병원에 들어가자 불빛 아래 패방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묘지였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이건 끔찍한 악몽이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 작은 단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아웬의 작은 손이 또다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문을 통과하고, 창문을 통과해 아웬의 병실에 들어갔다. 아웬은 흰색 침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고, 베개는 베고 있지 않았다. 침대는 매우 딱딱해 보였다. 병실에는 침대가 두 개 있었는데 빈 침대 하나는 자그마해 병상 같지 않았다. 아마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침대인 듯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아웬 옆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위는 이미 떠난 후였다. 병실 안에는 꽃병 두 개와 아직 피지 않은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조용히 대화를 한 후 병실에서 나가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들을 따라 들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웬의 병실로 돌아왔다. 아웬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잘 자고 있었다. 내가 아웬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톡 건드려 보아도 아웬은 느끼지 못했다.

나는 피곤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서둘러 시스차오(西石槽)에 사위와 그의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들으러 갔다. 사위가 두꺼운 이불을 갖다 놓았으며 아웬 침대 머리맡에는 전화를 놓을 거고, 냉장고도 주문할 거라고 했다. 간병인에게 오늘

저녁 청소와 간병을 같이 맡길 예정인데 이 일은 유 씨 아줌마가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는 또 아웬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아웬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피곤해 움직이고 싶지 않았고 아웬 침대 머리맡에 있다가 희미하게 사라져 갔다.

눈을 떠 보니 나는 객잔 침대 위에 있었다. 내가 정말 꿈이 되어 아웬의 손짓을 따라 아웬의 병원을 찾았던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내가 본 아웬이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웬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웬은 아픔을 참고 힘들게 조금씩 나에게 와서 기댔다. 나는 아웬의 허리 통증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다. 아웬은 나를 떠나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아 했으며 나를 혼자 옛 역로에 남겨두게 된 것을 미안해했다. 하지만 나는 아웬의 허리를 안고 천천히 후문으로 걸어가 사위에게 데려다 줬다. 아웬은 차에 허리를 굽히고 앉았는데 분명히 매우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도 차 창문을 내려 장갑을 벗고 손을 흔들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아웬..... 나의 하나뿐인 딸 아웬..... 항상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 잠을 자고 꿈을 꿔도 지워지지 않으니 내가 꿈의 세계를 만들어 아웬을 보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꿈을 꾸 거겠지? 나는 내 꿈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아웬의 병원을 찾을 수 있었을까?

나는 평소처럼 남편이 있는 배에 올랐고 남편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남편의 이마를 짚어 보았다. 이마도 후끈후끈했다. 남편은 분명히 열이 있었고 아웬 또한 분명히 열이 있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전에 나는 매일 아웬이 집에 있을 때의 일들을 남편에게 알려주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본 아웬의 병실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며 사위가 아웬을 위해 침대 머리맡에 전화를 놓고, 또 아웬을 위해 냉장고를 주문할 거라고 말해 주었다. 남편은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남편은 단지 옛 역로의 배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역로를 제외한 그쪽 집의 일들은 당연히 나만 알 수 있었다. 마치 나는 아직 그 집에 있고 남편만 집에서 떠난 것 같았다. 내가 남편에게 말한 일들 모두 그쪽 집의 일이었다. 남편은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었다.

남편은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나와 똑같이 아웬을 걱정했다. 나는 매일 남편에게 꿈속에서 보았던 아웬의 모습을 모두 얘기했다. 남편은 열이 나고 기력도 쇠약해졌지만 항상 관심 있게 들었다.

나는 매일 밤 꿈을 꾸고 매일 밤 아웬의 병실에 갔다. 전화는 이미 병실 침대 쪽에 놓여 있었고 병실에 꽃들도 점점 많아졌다. 작은 침대에서 자는 사람은 간병인인 유 씨 아줌마이다. 그녀는 아웬을 첸 교수님이라고 불렀고 아웬은 그녀에게 교수님라고 부르지 말고 첸 선생님이라고 부르도록 했다. 유 씨 아줌마와 첸 선생님의 사이는 매우 좋았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아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아웬을 ‘첸웬’이라고 불렀다.

병원의 규칙은 까다롭지 않았다. 남편이 있었던 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고 관리가 허술하며 무질서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운 곳이었다. 내가 매번 밤에만 병원에 갔기 때문에 사위는 볼 수 없었다. 나는 꿈으로 변한 후에도 피곤했지만 항상 이쪽저쪽 뛰어다니며 이쪽에서는 아웬을 보다가 또 저쪽으로 가서는 사위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니 나는 아웬과 관련된 일들을 꽤나 빠짐없이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정말로 꿈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아웬을 봤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마 나는 내 꿈속에서 꿈속에만 존재하는 아웬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역로에서의 경고문을 명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히 남편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그가 염려하는 일들, 바로 내가 꿈에서 봤던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해 줄 뿐이었다.

아웬의 병실에는 작은 냉장고가 없어 병실에 큰 냉장고를 가져다 놓았는데 근처 병실에서 냉장고를 같이 쓰고 싶어 하면 아웬은 그들에게 같이 쓰도록 했다. 이 때문에 아웬은 몇 명의 친구가 생겼다. 아웬 옆 병실에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입원했는데 한 호텔의 사장이었다. 그는 입원하기 전에 병실을 새로 단장하여 전자레인지와 전기난로까지 놓았다. 그의 부인은 ‘샤오마’라고 하는데 매일 싱싱한 야채를 가져와 남편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다. 샤오마 부인은 산시(山西)사람인 듯했고, 아웬은 그녀와 자주 산시(山西)의 ‘네 가지 정돈’<sup>1)</sup> 시기의 일을 얘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생각이 잘 맞았다. 샤오마 부인은 자주 아웬의 냉장고를 빌려 썼고, 또 자신이 만든 만두를 아웬에게 주었다. 병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요리사도 아웬에게 잘 대해줬다. 한 번은 특별히 아웬을 위해서 생선 한 마리를 구워 직접 병실로 가져다주었다. 그때 아웬은 생선을 반만 먹고 나머지 반은 유 씨 아줌마에게 남겨주었다. 아웬의 시어머님은 사위를 시켜 그녀가 가장 잘 만드는 ‘엄마표 치킨’을 보냈고 아웬이

1) 네 가지 정돈 : 정치, 조직, 경제, 사상 정돈. 계급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체 하에 발동한 사회주의 교양운동.

샤오마 부인에게 '엄마표 치킨'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그들 부부는 만두만 좋아해 치킨을 먹지 않았다. 샤오마 부인이 빚은 만두는 너무 커서 아웬은 두 개밖에 먹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히 아웬에게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매일 아웬을 위해 인삼탕을 꼭 고았다. 사위는 아웬을 위해 작은 전기레인지를 사서 우유를 데워서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음식 관련 얘기를 할 때 혹시나 남편도 먹고 싶어 하는지 주의 깊게 보았지만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나는 또 아웬이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학교 강의계획서를 심사하는 일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아웬은 병원에서 이틀에 한 권씩 탐정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집 안의 모든 탐정 소설을 한데 모아 병원으로 보냈고 친구들의 탐정소설까지도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웬은 정신력이 약해졌는지 탐정소설 대신 읽기 쉬운 레시피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아웬의 기력이 많이 떨어졌나 걱정되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웬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는 듯했다.

나는 또 남편에게 아웬의 친구가 너무 많아 매일 병실에 꽃들이 넘쳐난다고 알려주었다. 학교의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이 병문안이 끊이지 않았다. 또 친척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중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아웬을 보러 왔다. 나는 아웬이 무척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웬은 손님을 많이 만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시스차오(西石槽)에서 들어보니 손님들이 멀리서 어렵게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아웬은 차마 그들을 헛걸음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또 친척과 친구들에 대해 얘기할 때 남편이 관심을 갖는지 주의 깊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또 역시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전에 아웬이 배에 남편을 보러 왔을 때만 해도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던 그였다. 그러나 아웬이 입원을 한 후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모습이었다. 그에겐 활기가 없었으며 말도 하는 등 마는 등 하며 듣기만 하고 눈만 깜빡거렸다. 나는 남편과 매일 만났지만 그는 이미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린 듯했다.

아웬은 어떨까? 내가 꿈에서 찾은 아웬은 단지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웬일까?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아웬은 장갑을 벗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내가 아웬의 장갑이 아닌 진짜 아웬 자신의 손을 보게 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웬이

나를 위해 짜준 장갑만이 내 곁에 있을 뿐이다.

어느새 반년이 흘러 나는 아웬과 사위의 통화를 듣게 되었다. 아웬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병원에서 특별히 나를 위해 허리 보호대를 만들어 줬어요. 내 허리를 직접 재서 만들어서 그런지 한번 착용해 봤는데 아주 편했어요. 또 의사 선생님이 내일 CT촬영 후 부드러운 침대로 바꾸고 허리 보호대만 착용하면 침대에서 뒹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웬은 이미 많이 여의고 약해졌다. 병실의 큰 냉장고는 아웬이 다 먹지 못하고 남긴 음식물로 가득 차여 갔고 아웬의 머리가 한 움큼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 시스차오(西石槽)에서 들어보니 아웬이 모자를 써야겠다고 했다고 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차마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편도 막 한 차례 열이 끓은 후 열이 내려가고 있긴 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뎠기 때문이다. 나는 가만히 남편 곁에 있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되도록 하지 않았고 웬만한 걱정거리는 내가 혼자 짊어지려 했다.

다음날 밤 나는 또 병원에 갔다. 아웬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전히 딱딱한 침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만 뜬 채 누워있었다. 유 씨 아줌마는 전화를 받은 후 아웬에게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라며 건네줬다. 아웬은 수화기를 받고 말했다.

"네, 괜찮아졌어요. 오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님이 제 CT촬영을 하고 난 후 아직은 무리라고 했어요. 남편이 와서 원래 있던 딱딱했던 침대를 다 치워놓고 부드러운 침대로 바꿔줬는데 CT촬영 후 병원에서 딱딱한 침대를 다시 가져다 댔어요."

아웬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면 조금도 편하지 않아요. 차라리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우아하게 딱딱한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있을래요. 이리저리 뒹굴고 싶지도 않아요."

의사는 아웬에게 와 또 다른 치료를 받지 않겠냐고 물었다.

아웬은 의젓하게 말했다.

"좋아질 수만 있다면 할래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빠지면 또다시 자랄 거예요."

나는 옆 병실의 그 부자와 샴오마 부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남자가 물었다.

"옆방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나?"

여자가 말했다.

"본인이 말하는데 희귀한 결핵이래요. 수십 년간 잠복해 있다가 다시 재발했나 봐요. 이번엔 좀 심각해서 센 약을 써야 한다던데 그 사람 진짜 정신력이 아주 대단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부모님을 걱정하고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심장이 찢려 피멍울이 생긴 것을 느꼈다. 피멍울은 마치 뜨거운 눈물이 가득 차 있는 눈망울 같았다.

나는 꿈을 꾸기가 두려웠지만 또 감히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없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거듭 말했다. 꿈은 반대다.

아웬이 꿈에서 깨어나 꿈속의 엄마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내 꿈은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웬에게 기대어 어루만져도 아웬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

내가 알기론 꿈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내가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해서 악몽을 꾸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악몽을 꾸었다. 아웬은 이제 점점 음식을 들이지 않았다. 아웬의 머리 위에는 새빨간 혈액 주머니 하나와 흰색 아미노산 수액 주머니 하나가 걸려 있었고 의사는 아웬의 몸에 관을 연결하여 혈액과 수액을 놔주었다. 유 씨 아줌마는 쉬지 않고 작은 손가락으로 컵의 물을 떠 한 손가락 한 손가락씩 아웬의 입을 축축하게 적셨다. 내 심장에서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찬 눈망울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났다. 어느 날 밤 사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또한 작은 손가락으로 컵의 물을 떠 아웬의 입을 적셨다. 아웬은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꾸고 싶지 않았지만 꾸지 않을 수도 없었다. 나는 피곤해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나는 남편의 침대 앞에 앉아 얼굴을 남편의 침대 위에 기대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또다시 나에게 말했다.

"꿈은 반대다. 꿈은 반대다."

아웬이 입원한지 이미 일 년이 지났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됐다.

그러던 중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아웬이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주 가볍고 기운찻다. 아웬은 안정적으로 발판을 지나 배로 들어왔다. 그리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그리고 나에게 기대앉아 말했다.

"아빠"

남편이 눈을 떴다. 아주 크게 떴다. 그리고 아웬을 보고 또 본 후 나에게 말했다.

"아웬에게 돌아가라고 하세요."

아웬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저 완전히 다 나왔어요. 아빠....."

남편은 여전히 나에게 말했다.

"아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집으로요."

나는 아웬을 껴안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삼리허(三里河)집에 가서 집을 보고 있으라고 말 할게요"

나는 마음속으로 꿈은 정말 반대라고 생각했다. 아웬이 돌아왔다. 이제 나와 함께 남편을 보러 올 수 있게 됐다.

남편이 말했다.

"아웬에게 아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시스차오(西石槽)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나게 잘 지내라고 할게요."

"시스차오(西石槽)도 아웬의 집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집에 돌아가라고 하세요."

아웬의 맑고 투명한 눈에서 싱그러운 꽃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웬이 말했다.

"네 아빠, 저 돌아갈게요."

태양이 이미 뱃머리를 비추고 나는 몸을 일으켰다. 아웬도 일어섰다.

내가 말했다.

"이제 가야겠네요. 내일 봐요"

아웬이 말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아웬이 먼저 발판을 건넜고 나는 아웬을 뒤따라 언덕을 올라갔다. 나는 악몽에서 깨어난 듯했다. 아웬이 병이 다 나았다니! 아웬이 돌아왔다니!

아웬은 나를 이끌고 역로에서 나와 함께 몇 걸음 걸었다. 아웬은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엄마, 엄마에게 있던 하나뿐인 딸 이제 돌아가야 해요. 아빠가 저보고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엄마..... 엄마....."

아웬은 싱그러운 꽃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 눈앞에 있었다. 아웬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한 엄마라는 소리도 아직 내 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아직 어두워지지도 않은 백주대낮에 아웬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 짧은 순간,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 옆에 있는 버드나무를 짚고 사방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웬아, 아웬아 잘 가렴. 아빠의 축복과 함께 돌아가렴."

심장에 가득 채워진 눈망을 속 뜨거운 눈물이 순간 일제히 모두 터져 흘러내렸다.

나는 나무를 손으로 짚고 머리를 손 위에 기댔다. 가슴속 뜨거운 눈물이 위로 솟아올라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솟아오르는 눈물을 힘껏 목구멍으로 삼켜 넘겼지만 솟구쳐 오르는 힘이 너무 세서 가슴 가득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가슴 한가운데를 찢어 놓았다. 나는 땅 위의 돌 위로 피범벅이 된 물체가 무더기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곧장 가슴의 그 구멍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재빨리 주저앉아 그 피범벅의 물체를 가슴 한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다행히도 흘린 피가 많아 더러운 오물들이 깨끗이 씻어졌다. 나는 한 손으로 찢어진 곳을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위를 감쌌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 역로 위에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비틀비틀거리며 객잔을 향해 힘겹게 뛰어갔다. 주인은 마침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등불 아래 서 있었는데 손도 피로 덮여 있지 않았고 몸에도 상처 하나 없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평소와 다른 곳을 찾아내지 못했다. 저녁식사가 평소처럼 계단 아래의 작은 탁자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침대 위에 쓰러졌다. 가슴 가득 통증을 안고서 나는 아픈 꿈으로 변했고 서산 자락의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

아웬의 병실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침대 두 개가 사라져 있었다. 청소부가 바닥을 쓸고 나서 쓰레기 한 무더기를 버리려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거기에 있는 신발

한 켄레가 아웬의 신발이며 아웬이 병원에서 신던 신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옆 병실 샤오마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 잘 때 갔대요. 이런 병들은 원래 잠 잘 때 가요."

나의 꿈은 서둘러 시스차오(西石槽)로 갔다. 유 씨 아줌마는 내 사위집에서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기다란 퀘짜 위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사위는 자신의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위의 어머니는 친척과 아웬의 병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아웬이 어떻게 떠났는지도 말했다.

"첸웬은 자신의 병을 몰랐어요. 역로에 계시는 사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깥사돈과 사부인은 우리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나의 꿈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내 몸은 이미 기진맥진하여 움직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온 마음 가득 나의 오래된 보금자리로 돌아가 잠깐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었다. 내 꿈은 썬리허(三里河)의 집으로 돌아가 내 침대 머리맡 위에서 사라졌다.

눈을 뜨니 나는 객잔에 누워있었다. 내 심장은 이미 딱딱한 앙금 덩어리로 변해 있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내 심장이 뿔 때마다 심장이 내 창자와 이어져 있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웬은 이미 사라졌다. 이젠 내가 꿈으로 변해도 아웬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나 또한 피곤하여 꿈으로 변할 힘이 없어졌다.

역로에는 또 파르스름한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휘날리고 있었다. 작년에 떨어진 낙엽은 이미 북풍이 깨끗이 쓸어갔다. 나는 서둘러 남편이 있는 배에 올랐다. 남편은 고열이 가라앉은 후에도 종종 열이 살짝살짝 올라오곤 했다.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아웬은요?"

나는 남편의 침대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침대에 기대어 말했다.

"돌아갔어요."

"아웬이 뭐라고요?"

"당신이 아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의아해하며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도 아웬이 보였나요?"

나는 말했다.

"네. 당신이 저한테 아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강조하면서 말했다.

"내가 본 아웬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웬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본 사람이 아웬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고 아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웬은 미소를 지으면서 안심한 듯했어요. 아웬의 눈에 미소가 번졌는데 온 얼굴이 싱그러운 꽃처럼 활짝 피어났어요. 여태껏 아웬이 그렇게 아름답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웬은 아빠가 돌아가라고 하니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심했던 거예요."

남편은 슬픈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웬은 안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알아요. 아웬은 계속 아빠를 걱정하고 엄마를 차마 놓지 못하고 미안해했어요."

옛 역로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을 잃은 부부의 눈은 메말랐고, 오직 가슴 속에서만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딸은 저 멀리 사라졌다. 남편의 눈은 뜨거운 고통으로 가득 찼고 이내 서글픈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또한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 손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남편의 손을 만져보니 남편의 손바닥은 매우 뜨거웠고 맥박이 매우 빠르게 뛰었다. 또 열이 나려 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아웬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있는 거예요."

나는 아웬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아웬이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을 땐 이미 말기였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이 요추로 전이돼서 그 쪽 부분만 통증을 느꼈고 나중엔 신경이 끊어져 고통을 느낄 수 없었대요. 아웬은 빨리 나아서 우리를 보러 오기 위해 몇 차례에 걸친 치료도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지금 아웬은 어떠한 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일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게다가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정신없이 일할 필요도 없어졌고요. 제 말은, 제가 아웬을 낳은 이후 항상 걱정만 됐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 심장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알았다. 남편은 아웬을 안타깝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객잔에 머문 초기의 나의 꿈은 가볍고 빨랐다. 그러나 지금 내 꿈은 진흙이 묻은 버들개지가 무거워서 바람에 날지 못하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처음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삼리허(三里河)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웬을 잃은 후 내 몸 안의 내장까지 통증을 느꼈고 팔다리 또한 힘이 빠졌다. 그러나 매일 천천히 역로를 따라 걸어가 배 위에 있는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나무 장작처럼 뼈만 남았다. 나도 이제 늙어서 내 몸을 잘 가누기가 힘들었다. 남편은 말할 힘도 없었지만 여전히 힘겹게 눈을 떠서 나를 맞이했다. 나는 처음으로 배에 올라 남편과 재회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때 남편은 아직도 꿈을 꾸는지 물어봤었다. 나는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내가 전에 짧은 꿈을 꾸는 적이 있었는데 꿈에서 남편이 갑자기 말 한 마디 없이 사라져 그를 나무란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금 남편은 내가 조금씩 떠나보낼 수 있게 일부러 천천히 갖은 힘을 다해 나와 함께 하려고 버티며 짧은 꿈을 긴 꿈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내가 바라던 바이다. 긴 꿈을 꾸면 한참을 배웅하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도 또 한 번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별이 길어지면 고통이 증가할까 아니면 줄어들까?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 걷는 길이 길어질수록 그를 다신 못 보게 될까 더욱 두려워졌다.

버드나무는 또 푸르스름한 긴 잎으로 변했으며 또 점점 노랗게 물들어 가지에서 떨어졌고 역로는 또다시 버드나무 낙엽으로 가득 찼다.

이 날 객잔을 나오는데 우연히 문 뒤의 커다란 돌 하나가 보였다. 남편의 배 위에 있던 돌과 똑같았다. 나는 심장이 떨려왔다. 누가 배의 물건을 훔쳐 왔을까? 나는 소맷부리의 옷핀을 더듬었다. 궁금해도 물어 볼 수가 없었다.

건다 보니 맞은편에서 남자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여태껏 역로에서 다른 누군가를 본 적이 없었다. 여자는 겨드랑이에 발판 하나를 끼고 있었고 남자는 기다란 대나무 장대를 들고 있었다. 남편의 배에 있던 물건이 분명했다. 나는 그들을 막아서서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이건 배에 있던 물건인데!"

그러나 그 남자와 여자는 나를 무시한 채 성큼성큼 객잔으로 걸어갔다. 나는 지금까지 뱃사공과 뱃사공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경고를 어겨버렸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깐 주저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은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지만 항상 보이던 언덕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곧장 언덕을 찾으려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배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나는 곧장 산 비탈길을 올라갔고 태양은 그 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빨리 산에 올라 강가의 배를 찾고 싶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강 맞은편을 볼 수 있었다. 강 맞은편에도 산이 있었다. 강가에는 작은 배 하나가 정처 없이 떠도는가 했더니 이내 산 바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됐다.

내 눈앞이 흐려왔다. 어디선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혼자서 어두컴컴해진 산속을 오르던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다. 내가 평평한 바위에 앉았었는지, 나무에 기대어 쉬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날 밤 배에서 내리기 전에 남편이 눈에 힘을 주고 나를 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피곤하니 얼른 눈 감고 주무세요."

내가 말하자 남편은 말했다.

"여보, 잘 지내요."

내가 내일 보자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새벽빛이 희미해졌고 저 멀리 등 뒤로 태양이 솟아올랐다. 나는 산꼭대기에 섰다. 앞은 안개가 자욱했고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에 있는 산은 내가 있는 곳보다 높았다. 이 두 개의 산에 막혀 있던 강물이 두 산 사이로 폭포처럼 쿵쿵 쏟아져 나왔다. 나는 작은 배 하나가 폭포를 따라 빠르게 흘러나와 한 줄기 빛처럼 빠르게 끝없는 구름바닷속으로 끌려들어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니 그 작은 점도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내가 차라리 돌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산봉우리에 우뚝 서서 그 작은 점을 지켜볼 수 있길 바랐다. 나는 혼자서 물었다. 산 위의 돌들은 하나하나 여인들이 남편을 기다리다 변한 ‘망부석’이 아닐까? 나는 정말 움직이기가 싫었다. 하나의 돌로 변해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는 작은 배를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노란 이파리로 변했고 바람이 불자 울퉁불퉁한 바위 사이로 휘날리며 역로 위로 떨어졌다. 정말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바람에 의해 순식간에 옛 역로 위로 되돌아왔다. 돌아가는 그 길에 옛 역로를 쓸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걷던 그 길을 이별하는 심정으로 어루만졌다.

아직 객잔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몸이 회오리바람에 말려 공중으로 떠올랐다. 나는 공중에서 뱅뱅 돌다 현기증이 나서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마침 평소 꿈에서 쉬던 삼리허(三里河) 침실의 침대 머리맡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삼리허(三里河)의 집은 이미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이제 나에겐 하나의 객잔에 불과했다.



(좌)

1936년 옥스퍼드 대학 공원에서



(우)

1938년 어스 공원에서



(좌) 아웬이 5살때



(우) 아웬이 20살때

아웬에게 아빠가 최고의 단짝친구였다.  
남편은 아웬이 자신을 닮았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1981년 싹리허(三里河) 집에서

### 제 3장 나 홀로 그리는 우리 셋의 지난 날

싼리허(三里河)의 집은 우리 셋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집이었다. 하지만 우리 셋이 흩어지면서 집도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노인 혼자 남겨져 있는 모습이 마치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피곤에 지친 타향살이 여행객 같았다. 먼 곳을 바라보며 길을 배회하는데 어떻게 ‘인생은 꿈과 같다’, ‘인생은 물거품 같다’라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내 일생이 조금도 공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매 순간 충실했으며 재미있게 살았다. 바로 우리 셋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우리 셋 모두 이번 생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셋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셋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범했다. 남편, 아내, 아들, 딸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는가? 적어도 부부 두 사람에게 자녀를 포함하면 우리처럼 세 명 혹은 네다섯 명이 된다. 단지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집은 매우 소박했고 우리 셋은 매우 단순했다.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거나 쓸데없이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았다. 단지 우리가 서로 함께 있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길 바랐다. 힘든 일이 생기면 나와 남편이 함께 짊어졌기 때문에 힘든 일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었다. 또 아웬이 우리와 함께 하며 서로 도왔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모두 부드럽고 달콤한 일로 변했고 조그마한 즐거움은 커다란 기쁨으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 셋은 범상치 않은 조합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셋은 흩어졌다. 가는 사람은 붙잡을 수 없고, 떠난 사람은 쫓아갈 수 없는 법이다. 이제 홀로 남겨진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함께 했던 세월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그들과 재회할 수 있을 뿐이다.

(一)

1935년 7월, 남편은 스물다섯 살이 채 되지 않았고 나는 스물네 살이 되기까지 며칠만을 남기고 있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함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갔다. 우리는 집을 멀리 떠나 더 이상 부모님 그늘 아래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나와 남편은 서로의 벗이 되어 의지하며 살 수 있었다.

남편은 항상 자신을 한탄하며 말했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손재주가 없을까?’ 나는 남편이 신발 끈도 제대로 못 매며 왼발과 오른발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젓가락을 잡을 때 어린아이가 젓가락을 잡듯이 잡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른 일은 얼마나 둔하고 서투른지 모르고 있었다.

막 옥스퍼드에 왔을 때 남편이 크게 넘어져 옥스퍼드 바닥에 입맞춤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앞니 하나가 땅에 부딪쳐 부러져버렸다. 하필 그날은 남편 혼자 외출했는데 남편이 버스에서 미처 다 내리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을 해버려서 얼굴이 먼저 바닥에 곤두박질쳐졌다. 그 당시 우리는 킹 씨(Mr. King)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곳에는 우리 부부 외에 1인실에 사는 사람이 두 명 더 있었다. 한 명은 린 씨이고, 또 한 명은 정 씨로 둘 다 옥스퍼드에 학술교류를 위해 방문한 전문의였다. 그날 남편은 그렇게 넘어지고도 혼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걸어서 돌아왔다. 손수건은 온통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손수건을 털어내니 부러진 이가 떨어졌고 입안 가득 온통 피였다. 나는 남편의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급해 했다. 그러나 당시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의사여서 다행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얼른 남편을 치과에 데리고 가서 부러진 이를 뽑고 의치를 해 놓으라고 알려줬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가을학기는 10월 전후로 시작된다. 우리는 배를 타고 미리 도착해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런던에 여행 차 잠시 머물렀다. 이미 정부에서 남편을 위해 엑스터(Exeter) 칼리지의 문학 전공 학사(B. Litt)학위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주었고 나는 입학 관련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 나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여자 대학(Home Students)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 학교는 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정원이 이미 다 꽉 차서 만약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역사를 전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역사를 전공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일찍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국 웰즐리 여자 대학(Wellesley College)의 장학금을 포기했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학비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내 모교의 교장선생님은 내가 용기가 없어 아버지에게 그 학교에 보내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

한 줄 알고 나를 바보라 여겼다. 사실 나는 그전에 이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부담이 될까봐 포기했을 뿐이다. 그때 아버지는 나이가 이미 연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을 보태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칭화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국비로 해외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칭화대학교에 합격했고, 그때 당시 학부장님은 희극을 중시하는 분이셨다. 그러나 외국어 학부 대학원생 중 희극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학부장님은 칭화대학교 외국어 학부 대학원생 중 장래성이 있는 학생이 없어서 외국어과에서는 국비 유학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전에 칭화대학교에서 해외로 국비 유학생을 보냈을 때 국비 유학생들 중에 두 명이 동우대학(Soochow University, SCU) 동창생이었고 내 상급생인 짜오뤄루이와 나는 학교 장학금까지 받는 우수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국비 유학생이 되지 못했다. 나는 확실히 그 유학 간 동창생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동우대학에서 우수학생만 받을 수 있는 ‘황금열쇠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장래성이 없다고? 나는 만약 내가 칭화대학교 외국어 학부에서 희극을 전공했다면 아마 이미 작은 희극 하나 정도는 썼거나 학부장님이 나를 곁에서 키우는 학생으로 두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희극이 아닌 소설에 있었다. 그때 나는 어렸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이 가득했다. 나는 국비 해외유학생과 인연이 없었으므로 바로 남편과 함께 출국하기로 했다. 그래도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었다.

옥스퍼드의 학비는 다른 일반 학교보다 비쌌을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 비용도 따로 내야 했고 그곳의 집세 및 식비 또한 비쌌다. 만약에 내가 다른 학교에 진학한다면 두 사람이 떨어져서 지내야 하며 두 곳에서 지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로 왕래할 때 이동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았다. 남편의 앞니가 부러진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 안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산을 정하고 나니 남편이 받는 장학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없었다. 만약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 없었다. 이런 부모님을 두고 떠난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염치없이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택해 청강생이 되어 수업을 몇 과목 듣고 학교 도서관에서 자습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킹 씨의 집에서는 하루에 아침, 점심, 에프터눈 티, 저녁 이렇게 네 끼를 제공했다. 우리가 묵는 곳은 거실을 겸하는 2인용 침실이며 창가 가까운 곳에 정원이 있었고 매일 킹 씨 부부가 청소를 했다. 나는 정식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숙제가 없어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었다. 나는 여태껏 이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 칭화대학교에 내가 입학한 후에는 문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했고 혼자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 쑤저우(苏州)에서 대학에 다닐 때는 수업이 없을 때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며 문학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나는 고전문학이 가득한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다.

도서관 창가 쪽에 1인용 책상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나는 그중 책상 하나를 차지했다. 책상에 있는 책은 내가 스스로 골라 볼 수 있었고 미처 다 읽지 못한 책은 책상 위에 뒀다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주변이 매우 조용했다. 나는 내가 나름대로 짜놓은 공부시간표대로 한 권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었다.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

학기가 시작된 후 남편은 검은 조끼를 한 벌 받았는데 그 조끼에는 검은 천으로 된 띠 두 줄이 있었다. 남편은 중국정부의 박서장학금<sup>2)</sup>을 받는 학생이었지만, 옥스퍼드에서는 일반학생 신분이었고, 일반학생들은 모두 이런 검은색 조끼를 입었다. 남학생들은 딱딱한 사각 모자를 쓰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모자를 쓰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여학생들은 모두 부드러운 사각 모자를 썼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긴 외투를 입었다. 나는 거리에서 학생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학교를 다니지 못한 열등감이 커졌고 나에게는 없는 검은 조끼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웠다.

옥스퍼드 대학의 공동수업은 대학동에서 했고 남편의 수업은 학교 식당을 빌려 했는데 두 곳 모두 청강생이 꽤 많이 있었다. 내 수업과 남편의 수업은 겹치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따로 필수과목이 있었지만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은 지도교수님과 일대일 수업이었다. 나 혼자 치과오를 입고 수업에 가면 항상 두세

2) 박서 장학금 : The Boxer Indemnity Scholarship Program. 1900년(경자년)의 의화단 폭동으로 손실을 받았다는 빌미로 열강들은 1901년 청양조와 신축 조약(辛丑條約)이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 열강들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 미국국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배상금의 일부를 청나라에 환불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 돈으로 미국은 청나라 유학생들을 유치하였고 당시 연합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도 중국과 협정을 맺어 실제 손실 비용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돌려주기 위해 각종 장학금, 유학생과 견경비를 지원했다.

명의 수녀님과 함께 교실 구석에 앉아 청강을 하게 됐고 마음속은 더욱 열등감으로 가득 찼다.

남편은 내가 행복한 거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필수과목들을 보여줬다. 그것을 보자 나는 내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여겨졌다. 남편은 또 앞의 논문 제목 2개를 보여줬다. 논문제목을 보고 내가 이와 관련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나에게는 엄격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남편이 나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에 독서를 했다면 틀림없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두 사람 모두 지금 생활에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의 실망은 더욱 커 보였다.

옥스퍼드에는 H. N. 스팔딩(H. N. Spalding)이라는 부자 한 분이 있었다. 듣기에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에 한학 교수직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K. J. 스팔딩(K. J. Spalding)이 그의 남동생인데 한학자로 중국의 노장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K. J. 스팔딩은 옥스퍼드 대학 브레이지노스 대학(Brazenose College)의 주재 연구원(Fellow Don)으로 있었다. 부자 스팔딩 씨는 우리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남편에게 중국의 장학금을 포기하고 철학으로 전과한 후 남동생의 조수를 해 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그러나 남편은 바로 거절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 부부는 여전히 스팔딩 씨와 왕래했고, 그의 남동생은 더욱 자주 우리를 그의 거처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면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남편은 문학 전공 학사라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장학금을 포기하고 외국인 부자에게 빌붙는 일은 결코 하려 하지 않았다.

옥스퍼드 대학 학생의 반 이상은 귀족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온 부자들의 자제였다.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살다가 방학만 되면 바로 사방팔방으로 여행을 다녔다. 옥스퍼드 학제는 매년 3개 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기는 8주, 방학은 6주로 이루어졌다. 3개 학기가 끝난 후에는 3개월이 넘는 여름방학이 있었다. 시험은 학기 말에 보지 않고 입학한 후 2년에서 4년 정도 지나 졸업하기 전에 보았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시간이 닳쳐서야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평소에 학업은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밤에 서로 모여 호텔에서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며, 술에 취하면 소동을 피우고 학교 규칙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단과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각각 2명의 지도교수를 배정했는데, 한 명은 지도

교사이고, 또 한 명은 품행 지도교사(moral tutor)였다. 만약 담당 학생의 행동이 지나쳐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품행 지도교사가 보증을 서야 풀어줬다. 남편의 품행 지도교사는 종종 우리 부부를 불러 함께 차를 마셨을 뿐이었다.

옥스퍼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하나 또 있었다. 학생들은 매주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네다섯 번 정도 해야만 했다. 식사는 단지가 학생이 학교에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일 뿐이었다.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출석보다 더 중요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우수 문과학사 학위(B. A. Honors)를 받고 다시 2년 간 밥을 먹어야(즉, 학교에서 방학을 포함하지 않은 2년의 기간을 보내야) 석사를 취득할 수 있고, 다시 4년간 밥을 먹어야 박사를 취득할 수 있었다.

당시 옥스퍼드의 중국 유학생 대부분은 장학금을 받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 그들조차 방학기간에는 옥스퍼드를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남편은 3개 학기가 지난 후 여름방학에만 밖으로 나갔다.

사실 남편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칭화대학에서 6개월간 체험 학습을 할 때 나는 베이징의 명소란 명소는 다 가봤었다. 하지만 남편은 칭화대학교에서 보낸 4년 동안 위취안산, 바다추공원조차 간 적이 없었다. 칭화대학교 개교기념일 때 전체 학생이 이화원을 견학 가게 되어 남편 또한 이화원과 향산공원을 견학했을 뿐 다른 곳은 가본 적이 없었다. 1934년 봄, 내가 칭화대학에 다니고 남편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따라 베이징의 명소를 돌아다녔다. 남편은 연작시인 ‘북 여행 시’를 지은 적이 있는데 시구 중에 ‘올해 나는 이례적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네.’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은 ‘양장과 함께 한 위취안산’이라는 시 한 수만이 남아 있다.

옥스퍼드의 방학기간은 상당히 길었다. 남편은 방학기간 전부를 공부하는 데에 쏟아부었다. 대학 도서관의 고전은 18세기 위주여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고전 작품은 18세기와 18세기 이전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19세기, 20세기의 고전과 대중서적을 보려면 시립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빌려야 했다. 그 곳에는 책이 매우 다양했으며 대여 기간이 최대 2주였다. 그러나 우리는 2주가 지나기도 전에 도서관에 가서 다시 책을 빌렸다. 우리 집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중국의 고전, 시, 사, 시화 등 친구에게 빌린 책과 친구가 선물해준 책도 있었다. 서점에서도 책장 앞

에서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책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외출했는데 이를 ‘탐험’이라 불렀다. 아침 식사 후 킹 씨 부인과 딸이 방을 청소하도록 비켜주기 위해 밖으로 산책을 갔다. 저녁 식사 전에 하는 산책은 정신수양을 위한 산책이었으므로 천천히 걸었다. 이 두 가지 산책 모두 ‘탐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었고 산책을 갈 때마다 곳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는 작고 조용한 지역이었다. 우리는 큰 길, 소항구, 그리고 단과대학 입구에 자리한 공원들, 교외, 교회, 변화가를 걸어 다녔고 상점을 구경했다. 각 구역마다 다양한 집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추측하곤 했다. 또한 변화가의 많은 인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신분을 추측해보기도 했고 그들 중 책에서 본 인물들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했다.

옥스퍼드는 참으로 정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하는 길에 우리와 마주치면 바로 우리 가족의 편지를 꺼내 주었다. 아이들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중국 우표를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우람한 체구의 경찰도 흰색 장갑을 끼고 해질녘에 천천히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대문을 열어보면서 문이 잘 잠겼나 확인했고,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이 있으면 실례되지 않게 문이 열려 있다고 알려주었다. 산책을 마치고 킹 씨 집에 도착하면 우리는 창문의 커튼을 치고 마주보며 공부했다.

학기 중에는 우리도 사교활동을 조금 했다. 학우들 간의 사교활동은 보통 점심 후 에프터눈 티 시간에 이루어졌다. 교수님들은 집으로 학생들을 초대하여 차를 마셨고 학생들은 대학교 기숙사 안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그들 모두 남편과 나에게 차를 타는 법을 알려주었다. 먼저 주전자의 물을 데우고 찻잎을 티스푼 가득 채워 각자가 돌아가며 한 스푼씩 주전자에 넣었다. 네 사람이 차를 마시게 되면 찻잎을 다섯 스푼 넣고, 세 사람이 마시면 네 스푼을 넣었다. 끓인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차를 우리면 항상 진하게 차를 마실 수 있었다.

남편은 옥스퍼드에서 학교에 다닐 때 딱 한번 예복을 갖춰 입었다. 그 이유는 세인트조지스(Saint George's) 호텔 연회장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연회의 주인은 클락(C. D. Le Gros Clark)이란 사람으로 일찍이 1935년에 ‘소동파부(賦)<sup>3)</sup>’라는 소

3) 부(賦) : 한문문체의 하나. ‘부’는 본래 <시경>의 표현방법의 하나로서, 작자의 생각이나 눈앞의 경치 같은 것

책자 하나를 출판했다. 그는 남편에게 책의 머리말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다. 그는 남편이 옥스퍼드에 있는 것을 알고 그의 부인이 대신 파리에서 옥스퍼드로 와 우리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도록 했다.

나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호텔 입구에 검은색 고급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어떤 이가 차문을 열고 나왔는데 매우 작은 체격의 아시아 여인이었다. 클락(Le Gros Clark) 부인이 말했다.

"그녀가 바로 '만금유대왕<sup>4)</sup>' 후원후의 딸이에요. 남편이 전에 보르네오 총독부의 고위 관리를 맡은 적이 있어서 알아요."

그 후원후의 딸이란 사람도 옥스퍼드에 다니고 있었다. 전에 그녀의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했던 사건을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같은 반 친구 중에 중국인은 위다전, 위다인, 상다, 양런 등이 있었는데 우리의 주된 손님은 상다였다. 그녀는 런던에서 둔황의 두루마리 사본을 필사하는 일을 했고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서는 중국어 책 목록을 정리했다. 옥스퍼드의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휴스(E. Hughes) 목사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또 양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 모두들 그를 샤오양이라고 불렀다.

남편도 놀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냥 산수풍경을 감상하면서 놀기 보단 문학 놀이를 좋아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농담하고 엉터리 시를 읊어댔다. 그는 상다에게 장문의 타유시<sup>5)</sup>를 바쳤다. 앞의 두 문장은 상다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썼다. '겉보기에는 변함이 없는데(still) 마음속은 감상적(sentimental)이로구나.' 모든 시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들이었지만 그들 둘은 포복절도하며 웃었다.

상다가 남편에게 말했다.

"남들은 달콤한 말속에 칼을 품는데, 첸중수 당신은 입에 칼을 물고 배에 꿀을 담아 왔네요."

남편과 대등하게 문학 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남편이 각박하다고 싫어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는데 이 행동이 우리를 오만하게 보이게 했다.

---

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 4) 만금유대왕 : 만금유(萬金油, 호랑이 연고, 타이거 밤, Tiger Balm), '후원후'는 이 연고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 돈을 많이 벌자 '만금유대왕'이라 불렸다.
- 5) 타유시 : 옛날 시체(詩體) 중의 하나. 내용과 시구가 통속·해학적이며 평측(平仄)과 운율(韻律)에 구애받지 않음. 당(唐)대 장타유(張打油)가 만들어서 유래된 명칭.

그때 우리는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 하지만 세상을 잘 알고 처신을 잘 하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남편과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二)

킹 씨 집의 요리는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처음의 맛을 따라가지 못했다. 남편은 식습관이 매우 보수적이라 서양 티가 나는 요리는 입에 대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는 치즈도 어떻게 요리를 하든 간에 먹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남겨서 남편에게 주었다. 나는 먹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배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오래 버티기 힘들 듯했다. 게다가 우리 두 사람이 방 하나에서 같이 생활을 하니 매우 불편했다. 나는 학점에는 연연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중히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남편처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랐다. 만약 남편에게 손님이 오면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두세 시간을 희생해 현모양처의 역할을 해야만 했고 담배 냄새도 어쩔 수 없이 맡을 수밖에 없어 혼자서 속을 태웠다.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여 가구가 갖춰진 방을 임대하고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여 숙식 수준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미 시장 상황도 다 파악해 왔다. 그러나 남편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나한테 굳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당신은 어차피 요리도 못하고, 킹 씨 집에서는 밥은 차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우리 방은 넓은 편이에요. 그냥 되는대로 살아요."

나는 말했다.

"킹 씨 집의 음식 정도는 나도 언제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신문광고를 보면서 혼자 집을 구하러 몇 곳을 돌아봤는데 모두 먼 교외 지역에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탐험'을 하러 나갔던 어느 날 고급 주택에 붙어 있는 임대 광고를 보았다. 다시 가 봤을 땐 이미 그 광고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 그 집 문 앞에 서서 먼저 양해를 구할 말을 준비하고 용기 있게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집주인인 텔레이(Del lay) 여사였다. 그녀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노처녀였다. 그녀는 나에게 집을 임대하러 온 건지는 묻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나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방은 2층에 있었고, 침실 하나, 거실 하나에 난방용 전기난로가 있었다. 방 앞에

는 커다란 베란다가 있었는데 차고의 지붕이었고 그 아래는 커다란 잔디밭과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주방은 매우 작았는데 전기 레인지가 있었다. 욕실 안에는 구식 수도관이 있었고 온수를 켜면 수도관에 있는 물이 수도관을 따라 뱅뱅 돌면서 데워져 뜨거운 물이 작은 욕조 위로 흘러나왔다. 이 집은 집주인이 세를 주려고 일부러 분리시킨 공간인 듯했고 실외 계단이 화원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또 별도의 작은 문이 있어 그 집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꼼꼼하게 임대 항목의 조건을 확인했고 다음날 바로 남편을 데리고 집을 보러 갔다.

집의 위치는 정말 좋았다. 학교와 도서관이 모두 가까웠고, 길만 건너면 바로 칼리지 파크가 있었다. 킹 씨 집에서 지낼 때는 공용 욕실,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공용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집세, 수도세 등 각종 비용을 예상해보니 킹 씨 집의 집세보다는 비쌌 듯했지만 크게 상관없었다. 그냥 우리 예산을 넘기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내 예산은 넉넉했다. 남편도 집을 보자 좋아했다. 우리는 바로 텔레이 여사와 집 임대차 계약을 했고 바로 킹 씨 집에 알렸다. 우리는 그 해 크리스마스를 킹 씨 집에서 함께 보내고 새해 전후로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다.

우리는 먼저 식료품점에서 신선한 우유와 빵을 주문했다. 우유는 매일 새벽 우리 집 문 앞에 놓고 갔고 빵은 갓 구어 나오면 빵을 배달하는 남자 아이가 점심시간에 우리 집으로 배달했다. 그 식료품점에는 계란, 찻잎, 버터 및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식품,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야채, 과일, 늘 먹는 식품 등 없는 게 없었다. 우리는 그냥 그 가게에 가서 고르기만 하면 됐다. 그러면 남자아이가 식료품을 나무 상자에 담아 문 앞까지 배달해줬다. 그리고 다음에 배달을 할 때 빈 나무 상자를 수거해 갔다. 돈은 그때그때 지불하지 않고 무슨 재료든지 모두 가게 주인이 작은 장부에 기록해 놓아 2주마다 한꺼번에 정산을 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거나 해질 무렵 ‘탐험’을 갈 때 가게를 지나면서 필요한 식품을 주문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이 장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즉시 돈을 지불했고 한 번도 결제를 밀린 적이 없었다. 가게 주인도 우리를 단골로 대접해 우리가 들어온 지 오래된 식품을 고르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건 들어온 지 좀 된 거예요. 하루 이틀 뒤에 새로 들어오면 신선한 걸로 보내드릴게요."

또 다른 신선한 무언가가 들어오면 가게 주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남편의 시집 ‘괴취시존(槐聚詩存)’중 1959년 나를 위해 쓴 시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그녀는 뽕나무와 쌀을 부지런히 헤아려 집안일을 터득했네’ 하지만 나는 예산을 정하고 가게에 가서 주문만 했을 뿐이었다.

나는 우리가 킹 씨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어떻게 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기억나는 건 새로운 집에 정교한 장롱이 하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롱이 있던 그 방이 원래는 큰 거실에 딸려 있던 방을 개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새 집에는 서랍도 많았다. 오후쯤에 이사를 갔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 두 사람은 전기레인지와 전기포트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전기포트에 가득 채운 물은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우리는 주방에서 쓰는 냄비와 칼, 포크, 컵, 그릇 등 텔레이 여사 집에 딸린 주방도구로 아쉬운 대로 저녁을 요리해 먹었다. 짐도 많지 않은 이사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바빠 움직여야만 했다. 옷과 책을 정리하니 밤이 깊어졌다. 남편은 너무 피곤해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처음 맞은 아침, 손재주가 없던 남편이 솜씨를 발휘했다. 나는 늦게 잠들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혼자서 아침을 준비하고 침대용 탁자에(좀 큰 쟁반에 짧은 다리를 붙여놓은 듯했다.) 아침 식사를 날라 와 내 침대 앞에 놓았다. 나는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벌떡 일어나 식사를 만끽했다. 남편은 친구한테 배운 대로 ‘5분 완성 계란’을 삶고 빵을 구웠으며 우유를 데우고 진하고 향긋한 홍차를 끓여왔다. 뜻밖에도 꽤 괜찮았다.(킹 씨 집에 어디 이런 좋은 차가 있었나? 게다가 그들은 우리 두 사람에게 작은 컵으로 우유 한 잔만 제공했을 뿐이다.) 남편은 또 버터나 잼뿐만 아니라 꿀도 준비해 왔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맛있는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날들 중, 우리가 대가족과 함께 지냈던 날들을 제외하고, 또 집의 가정부가 하루 세 끼를 챙겨줄 때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아팠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한 끼의 아침식사는 항상 남편이 준비했다. 매일 아침 큰 찻잔 가득 채운 밀크티 한 잔은 평생 빠뜨려서는 안 될 그의 일과가 되었다. 이후 국내에서 인도의 ‘립톤(Lipton)’차잎을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대신 3가지 고급 홍차 잎을 섞어서 마셨다. 윈난성의 홍차 잎은 향을 담당하고, 후베이성의 홍차 잎

은 씹쓸한 맛을 담당하고 치면현의 홍차 잎은 색을 담당했다.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 그때 다 마시지 못한 '삼합(三合)믹스 차'가 남아 있어 그 차를 보면 당시 가장 행복했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또 30 여 년이 지난 후의 일들도 함께 떠올랐다. 1972년 이른 봄, 우리가 간부학교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이다. 베이징에서도 가스(Gas)가 연탄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녁에 석탄 화로를 끄고 잤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평소처럼 아침밥을 날라 왔는데 거기에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기를 떡'도 있었다. 남편은 얼굴 가득 득의양양의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남편이 떡도 만들 수 있냐고 칭찬을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별일 없는 듯 행동했다. 나는 떡다 보니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누가 불을 붙여줬나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저녁에 석탄화로의 불을 다 꺼놓았는데 남편이 아침에 화로를 열어 불을 지펴 놓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또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나 이제 성냥을 켤 수 있어요!"

그가 단지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 난생처음으로 성냥을 켜던 것이다.

우리가 새 집에 이사를 가고 나서 우리만의 주방이 생기자 남편은 '홍사오러우'가 먹고 싶다고 했다. 위다전, 위다인 그리고 다른 남학생들은 요리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우리보다는 아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기를 삶고 그 삶은 물을 버린 후 다시 생강, 간장 등 양념을 넣으라고 했다. 생강과 간장은 모두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옥스퍼드에서는 보기 드물었다. 게다가 여기서 구한 간장들은 신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맛이 짜고 썼다. 우리 주방의 도구들도 중국 요리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고기를 사서 큰 가위로 네모나게 잘랐다. 그다음 그들이 말해 준대로 끓였다. 두 사람이 전기레인지 앞에 서서 열심히 요리를 했다. 불을 충분히 세게 하여 국물이 졸여지면 다시 물을 부었다. 나는 그때 그 질긴 고기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나는 어머니가 마멀레이드를 만들 때 약한 불을 사용하여 오래 끓였던 것이 생각났다. 그렇다. 내 알팍한 과학 지식에 의하면 약한 불은 말 그대로 불이 약하지만 그 힘은 오히려 쉰 불보다 강했다. 다음에 우리는 셰리주(Sherry) 한 병을 사서 황주 대신 썼고 약

한 불을 이용해서 삶았으며 삶은 물도 버리지 않고 거품만 거뒀다. 예상외로 홍사오러우는 꽤 괜찮게 만들어졌고 남편은 굉장히 좋아하며 홍사오러우를 먹었다.

이사는 우리에게 일종의 모험이었고, 스스로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험이었는데 홍사오러우를 먹어보니 우리의 모험은 성공한 듯했다. 하나가 성공하니 다른 것도 줄줄이 성공했다.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모두 약한 불로 푹 삶았고 홍사오러우처럼 간장을 넣어 조리하지 않고 물로 삶아도 똑같이 맛있었다. 우리는 내가 얇게 썰어놓은 연한 양고기를 전기레인지 앞에 서서 살짝 익혀 먹었고 야채는 탕 안에 넣어 익혀 먹었다. 나는 또 전에 주방에서 야채를 어떻게 볶았는지 생각이 나서 기억대로 볶아봤더니 삶아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다.

한 번은 식료품점에서 강낭콩을 보내왔다. 우리는 강낭콩을 잘 몰라서 콩을 까는데 콩각지가 너무 두껍고 콩은 너무 작아서 의아해했다. 그러다가 나는 이 강낭콩이 원래 콩각지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강낭콩을 콩각지째 푹 끓여서 먹었더니 매우 맛있었다. 또 식료품점에는 절인 고기가 있었는데 이 고기는 생고기와 함께 조리할 수 있었고 맛은 햄 맛과 비슷했다. 가공육은 서양식 소시지가 있는데 중국의 소시지보다 신선하지는 않았다. 돼지머리고기는 이제까지 상에 오를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식료품점에 있는 돼지머리고기(Bath Chap)는 가공되어 뼈는 이미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고 얇고 납작하게 눌러 동그란 전병과 모양이 비슷했다. 입, 코, 귀 부분 모두 맛있었지만, 목 뒷부분은 좀 기름져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또 살아 있는 새우도 있었다. 나는 매우 숙련된 전문가처럼 말했다.

"수염과 다리는 잘라야지."

가위질을 한번 하자 살아 있는 새우가 내 손에서 꿈틀거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가위를 떨어뜨렸고 새우도 떨어뜨려 버렸다. 떨어진 새우는 주방을 뛰어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왔다. 남편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새우가! 내가 가위질을 한번 하니까 아픈지 꿈틀거렸어요. 우리 다음부터는 새우 먹지 말아요!"

남편은 나에게 새우는 우리처럼 고통을 느낄 수 없으며 어차피 먹어야 하니 다음부터는 그가 자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실험했다. 처음에는 원시시대 요리를 해 먹다가 점점 개화되어 문명시대의 요리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놀면서 요리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즐거웠다. 남편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 남편은 짙은 먹물을 가져와 내 얼굴에 낙서했다. 이것은 이 시간들이 '매우 즐겁다'라는 그 만의 표현이었다.

나는 점심을 차리는 일은 내 담당이라 여겼고 남편은 옆에서 거들기만 했다. 나는 가끔씩 만약 우리가 밥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된다면 훨씬 할가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먹어야 해요. 신선처럼 흰 바위를 삶아서 먹고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 삶은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은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이 요리를 하다 연기에 그을려 까매질까 걱정돼 신선처럼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고 싶네.<sup>6)</sup>

하지만 전기레인지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고 남편 또한 곡기(穀氣)를 거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리의 발이 네 개이길 원하고 자라의 등딱지 주변의 살이 두 겹이길 바라네.<sup>7)</sup>"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오리와 자라를 먹어 본 적이 없다. 남편은 웃으면서 내가 고지식하다며, 그냥 시를 지었을 뿐이라고 했다.

남편은 몇 번씩이나 나에게 시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시를 지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학생이었을 때, 시 짓기 과제가 있으면 늘 좋은 평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압운<sup>8)</sup> 맞추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시 낭독도 좋아했다. 중국 시, 서양 시를 막론하고 다 좋아했으며 남편과 시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했다. 또 우리는 종종 함께 시를 외웠다. 둘이 똑같이 한 글자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이리저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 그 글자는 분명히 시 전체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글자였다. 만약 적절한 글자였다면 입에 딱 붙어서 잊어버릴 수가

6) 枕卿烟火熏颜色, 欲觅仙人辟方。

7) 鵝求四足鰓双裙 : 오리발의 발과 자라의 등딱지 주변의 살은 매우 맛있어서 오리에게 다리가 네 개 였으면 하고 오리의 등딱지 주변의 살이 두 겹이길 바란다.

8) 압운(押韻) : 시와 같은 운문에서 행의 처음과 행의 끝, 행간 휴지 등에 비슷한 음 혹은 같은 음을 반복해서 문장을 정비하는 수사법.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매우 즐거웠고 마치 세상을 만들어 낸 듯했다.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후 눈이 많이 오던 날이 떠올랐다. 전에 집 주인이었던 킹 씨가 눈을 밟고 서둘러 오면서 황급히 소식을 알렸다.

"국왕이 서거하셨습니다."

영국 조지 5세의 서거는 1936년 이른 봄의 일이었다. 우리는 영국 국민들이 황실을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었다. 킹 씨는 정말이지 부모님을 잃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포기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그 날은 남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영국 친구 스튜어트(Stuart)가 황급히 호외신문을 들고 와서 톱기사라며 알려줬다. 그날도 눈이 내렸고 그 해 겨울의 일이었다.

스튜어트는 우리 집 단골손님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상다였다. 상다는 휴스 목사님 집의 매 끼니가 모두 감자라고 투덜거렸다. 우리는 그녀를 초대하여 우리 집의 어설픈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얹혀살고 있는 곳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우리 중에 사교활동이 가장 활발했기 때문에 자주 와서 중국 유학생들 간의 이런저런 일들을 말해 주었다. 여기에는 남편의 흥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 씨 자매를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에게서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튜어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남편과 스튜어트 모두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과목이 두 과목 있었다. 하나는 고문서학(Paleography)이고, 하나는 장정학이다. 책에 접은선 따라 접기가 있었는데 그들 둘은 어떻게 접어도 똑같이 접지를 못했다. 두 사람은 화가 나 고소라도 하려는 듯이 나에게 와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여자라서 종이 접기를 비교적 쉽게 이해했다. 나는 그들에게 반대로 접으라고 말했다. 책에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허둥지둥 다시 시도해보니 잘 접혔다. 그들은 바로 나를 데리고 고문서학을 함께 공부했다. 나는 귀이개 하나를 꺼내 뽀족한 부분으로 글자를 하나 하나 짚으면서 확인했다. 예를 들어 'a'는 'a'가 조금씩 변한 것이다. 그들의 시험문제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았다. 시험문제로 나온 글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분별하기만 하면 되었고, 문제를 푸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또 글을 몇 줄만 번역하면

되었고 분량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틀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엄격하게 확인했고 한 글자만 틀려도 점수가 감점됐다. 남편은 긴장해서인지 제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전 고문을 번역해버렸다. 남편은 점수가 몇 점 감점이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깎았다. 결국 불합격하여 다시 시험을 보게 되었지만 재시험을 보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 남편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우리는 텔레이 여사에게 방학이 끝난 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고 텔레이 여사는 임차인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며 우리에게 그 집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 집은 우리가 묵던 곳보다 조금 컸다. 우리는 방학기간 동안 집을 텔레이 여사의 집에 맡겨둘 수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차림으로 런던, 파리로 '탐험'을 갈 수 있었다.

이 일 년은 내가 태어난 이래 가장 흥분하고 즐거운 일 년이었으며, 내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일 년이었다. 집을 매우 그리워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나처럼 그렇게 간절히 집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三)

우리가 처음으로 런던에 갔을 때, 남편의 사촌동생인 첸중한이 대영박물관과 유명한 갤러리, 밀랍 인형 전시관 등을 구경시켜줬다. 첸중한은 이번 여름 방학에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독일과 북유럽을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실습도 했다고 했다. 남편은 이 점에 대해 매우 감탄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런 경험을 하려고 할 인물이 아닌데다가 그쪽에 관심도 없었다. 남편은 그냥 애처롭게 나와 함께 '탐험'을 할 뿐이었다. 탐험은 숙소에서 하이드파크까지, 숙소에서 토트넘의 오래된 서점까지, 동물원에서 식물원까지, 잘 사는 지역인 서쪽에서 빈민 지역인 동쪽까지 이어졌다. 가끔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파리에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다. 런던에 있을 때인지 파리에 있을 때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남편은 정부 당국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다. 1936년 세계청년회의의 대표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하는데 대표는 총 3명이며 나머지 두 명은 누군지 몰랐다. 우리가 파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소개로 파리에 사는 중국공산당 당원인 왕하이징이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우리를 중국식당에 데려가 식사를 대접했다. 그는 나에게 '세계청년회의'의 공산당 대표가 되어 달라고 했다. 나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남편과 함께 스위스에 가면서 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가자격이 있는 신분으로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남편은 나를 따라 공산당 대표들과 함께 움직였다. 회의가 열리기 전날 밤 심야 열차를 타고 제네바에 가는 길에 우리 두 사람은 타오항지와 같은 객실을 이용했다. 우리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세 아침이 밝아왔다. 타오항지는 객실에서 나를 데리고 나와 복도에서 열차 밖의 하늘을 보게 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지 가르쳐주었다.

세계청년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우리 두 사람은 빠질 수 있는 회의는 모조리 빠졌다. 우리는 길이 좁고 고르지 않아 걸기 힘든 산길과 레만 호숫가를 탐험했고,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레만 호수는 걸을수록 더 넓어져 도저히 한 바퀴를 다 돌 수가 없었다.

우리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 청년이 세

계의 청년에게 발표를 할 때면 반드시 회의에 참석했다. 공산당 대표가 무대에 올라 영어로 발표를 할 때 영어 원고는 남편이 써 줬다. 발표에 대한 반응은 꽤 좋은 편이었다.

스위스에서 파리로 돌아온 후 일 이주 동안은 파리에서 지냈다. 당시 우리와 친한 친구 몇 명이 파리대학(Sorbonne)에 다니고 있었다. 성칭화는 내가 칭화대학교에 다닐 때 함께 프랑스어 수업을 듣던 학생이다. 듣자 하니 우리가 파리대학에서 학위를 따려면 2년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파리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처럼 '식사 규칙(매주 4-5회 저녁식사를 학교 식당에서 먹어야 함)'도 없었고 일찍 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옥스퍼드로 돌아가기 전에 성칭화에게 우리 대신 입학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1936년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옥스퍼드에 있었지만 이미 파리대학교의 학생이 되어 있었다.

텔레이 여사가 이번에 세를 준 방은 그전 방보다 더 그럴듯했다. 그 집 욕실은 신식 욕실이어서 구식 수도관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온수를 전기로 데웠기 때문에 한 달 후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그 금액에 너무 깜짝 놀라 바로 온수 사용을 줄였다.

이번 여름방학엔 우리로서는 먼 곳을 유람 한 셈이었다. 옥스퍼드로 돌아올 때 나는 이미 임신한 몸이었다. 대부분 결혼을 하면 아이를 원하게 되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행히도 그때는 내가 한가했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후 프랑스로 데리고 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었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많은 여학생들은 아이를 낳으면 유아원에 보내거나 혹은 시골에 맡겨 길렀다.

남편은 간곡히 부탁하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아들을 원하지 않고 딸을 원해요. 당신을 닮은 딸 한 명이면 돼요.”

나는 나를 닮은 딸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닮은 딸을 원했다. 딸이고 남편을 닮았다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이런저런 상상을 했다. 내 딸은 확실히 남편을 닮았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 일이다.

나는 임신하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온 신경을 이 새로운 생명에게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등 동물에게는 새 생명의 탄생이 곧 모체의 소멸을 뜻한다. 나는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30퍼센트 안에서 모든 기능이 감퇴했다. 남편은 연말 일기에서 나를 이렇

게 묘사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올해 공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놀리는 말도 있었다.

"재능과 용모로만으로는 현모양처가 되기에 충분하나 박사과정을 더 밟고 싶어 한다."

남편은 정성이 극진했다. 일찌감치 나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1인용 병실을 예약하고 여원장에게 전문의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원장이 물었다.

"여 선생님을 원하시나요?"

그 여의사도 전문의였고, 일반 병실의 임신부는 모두 그녀를 통해 분만했다.

남편이 말했다.

"가장 잘 하시는 분을 원합니다."

여원장은 우리에게 스펜스(Dr. Spence)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다. 그의 타운 하우스는 우리 숙소와 멀지 않았다.

스펜스 의사 선생님은 내가 이제 곧 '대관식 베이비'를 낳을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계산했을 때 우리 아기의 생일이 조지 6세의 대관식 날(5월 12일)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딸은 영국 왕의 대관식 날에 조금도 관심 없이 없었다. 아마 그때 이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나보다. 나는 18일에 산부인과에 갔고 19일에도 온 힘을 다했지만 아이를 세상에 내 보내지 못했다. 결국 의사는 약을 사용해 수면하도록 유도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플란넬 소재에 싸여 있었고, 다리 뒤에는 따뜻한 물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뱃속은 비어 있었고 피부부터 뼈까지 온몸이 아팠으며,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간호사가 말했다.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다른 간호사도 입구에서 머리를 내밀며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다.

"어떻게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그녀는 내가 곧 죽을 것처럼 아파했는데도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점이 믿기 어려웠나보다.

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소리를 질러도 아픔은 그대로잖아요."

그러자 그녀들은 더욱 신기해했다.

"중국 여자들은 그런 이치까지 통달했나요?"

"중국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나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와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났을 때 이미 온몸이 새파래져 있었고 그녀가 응급처치로 살렸다고 한다. 간호사는 우리 아기가 옥스퍼드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중국 아이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았고 말할 힘도 없어 또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하루 전에 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왔다. 우리 집은 병원과 그다지 먼 편은 아니었지만 버스로는 갈 수 없는 곳이어서 남편은 할 수 없이 몇 개의 버스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어왔다. 이날 남편은 네 차례나 나를 만나러 왔다. 남편이 오전에 왔을 때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딸이라고만 알려주고 보여주지 않았다. 두 번째로 왔을 때 나는 약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로 왔을 때는 내가 플란넬 소재에 싸여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어 말할 수 없을 때였다. 네 번째는 점심 후 티타임에 왔는데 그때는 내가 깨어 있었다. 간호사는 특별히 남편을 위해 우리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안고 나와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남편은 뚫어지게 보고 난 후 기뻐하며 말했다.

"이 아기가 내 딸이에요 예쁘죠?"

아웬이 성장한 후 아빠가 제일 처음 한 말을 들려주었더니 아웬은 매우 감격해했다. 그때 당시 나는 아직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웬이 못생기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남편이 네 번째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그에게는 일곱번째 발걸음이었다. 나는 그가 피곤할까봐 차를 타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아웬이 철이 든 후, 매년 생일마다 남편은 이 날은 엄마가 정말 힘들어 한 날이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 날은 아빠도 힘들었고 아웬 자신도 힘들었던 날이

었다. 아웬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마 아웬은 그때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지 목청껏 울었다. 간호사들은 아웬의 우는 소리가 우렁차서 아웬을 'Miss Sing High'라고 불렀다. 뜻은 '소리 높여 노래 부르는 아가씨'이고 음역하면 '싱하이 아가씨'였다.

1인실은 위층에 있었다. 날씨가 좋으면 간호사들은 긴 창문을 열고 병상을 베란다 쪽으로 옮겨주었다. 나는 가끔씩 근처에 있는 두세 개의 병실을 보았다. 병원에 1인실은 6~7개 혹은 7~8개 정도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는 정성껏 간호해 주었고 나의 침실은 아웬의 식사 장소가 되었다. 매일 시간 맞춰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오면 내가 젖을 먹였고 다 먹이면 다시 신생아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전문적으로 아기를 보는 사람이 관리하고 흰 가운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보통 1인실에 묵는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열흘을 묵었고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5일에서 7일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3주 하고도 이틀을 더 머물렀다. 병원비는 하루에 1기니<sup>9)</sup>였다. 병원에서는 병상 수가 한정되어 있고 1인용 방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가 오래 머물지 않게 했다. 나는 몇 번 퇴원을 하려 했으나 사고가 생겨 병원은 이례적으로 나를 '특수 환자'라며 계속 입원시켰다.

퇴원하기 이틀 전 간호사는 나를 엘리베이터에 타게 한 후 아래로 데려가 일반 병실을 보여주었다. 한 방에 32명의 엄마와 33명의 아기(한 쌍은 쌍둥이이다)가 함께 있었다. 간호사는 나에게 하나하나 옷을 벗겨 아기의 몸무게를 재고 깨끗하게 목욕시킨 후 엄마에게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기들은 침대 끝에 이어져 있는 아기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나는 아기들이 엄마의 침대 끝에서 잘 수 있는 것이 매우 부럽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는 아웬의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나에게 아기를 어떻게 씻기고 옷을 입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간호사들보다 동작이 빠르진 않지만 대충 할 수는 있게 됐다.

남편은 이 기간 동안 혼자서 생활했다. 그리고 매일 산부인과에 들러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그가 잉크병을 엮어서 집주인의 테이블보를 물들여버렸던 것이다.

9) 기니(guinea) : 영국의 구 금화로 현재 1.05파운드에 해당. 상점에서는 파운드로 계산을 하는데 지도교수비, 의사 진찰비, 변호사비 등은 '기니'로 계산했다.

나는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빨 수 있어요."

"잉크예요!"

"잉크도 다 빨 수 있어요."

남편은 안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난 후 또 일을 저질렀다. 탁상용 전등을 실수로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나는 어떤 전등이냐고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등을 바꿔줄게요."

남편은 또 안심하며 돌아갔다.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남편은 정말로 안심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런던에서 '탐험'을 할 때 그의 광대뼈 부분에 종기가 나서 나도 매우 당황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영국 간호사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녀가 나에게 온찜질을 해주라고 알려줬다. 나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치료해 줄게요."

나는 열심히 매시간 그를 위해 온찜질을 해 주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종기를 떼어 낼 수 있었다. 얼굴에도 흔적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남편은 감격하며 나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믿음이 가네요.' 내가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남편은 갖가지 사고를 쳤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말 다 말끔하게 해결했다.

남편은 차를 불러 나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닭고기 수프에 진녹색 누에콩의 껍질을 벗겨 넣었고 그릇에 담아 나에게 가져왔다. '귀한 아드님'이 어떻게 임신부를 보살폈는지 들었다면 시댁에서 얼마나 놀랐을까?

남편은 순조롭게 논문 구술시험을 통과했다. 같이 옥스퍼드에서 유학하는 박사장 학금 동기는 면접이 끝난 후 특의양양하게 남편에게 말했다.

"면접관이 나에게 한 가지만 물어봤어. 그 외 보충 질문도 없었다구."

그런데 예상 밖에도 그는 논문을 다시 써야 했다. 남편과 같은 대학의 영국 친구도 논문 구술시험을 통과하지 못 해 학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문학 전공 학사(B. Litt)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의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짐을 싸서 보낸 후 우리 세 식구는 곧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